

인구소멸 위기 지역에서의 청년층 정착을 위한 도서관 역할의 확대에 대한 연구

A Study on the Expansion of Public Library Roles for Youth Settlement in Regions Facing Population Extinction

김 인 영 (In Young Kim)*

노 영 희 (Younghee Noh)**

초 록

본 연구는 도서관의 문화복지 서비스가 청년층 유출 방지와 경제활동 인구 유치를 통해 지역사회의 지속 가능성을 높이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할 수 있음을 확인하고, 이를 실현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연구 결과, 도서관은 직업 교육, 창업 지원, 커뮤니티 네트워킹 등 실질적인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청년층이 안정적인 생활 기반을 마련하고 지역사회에 정착하도록 지원할 수 있는 중요한 거점으로 기능할 수 있는 것으로 인식되었다. 이를 기반으로 본 연구는 도서관의 역할 확장을 위해 네 가지 전략을 제안하였다. 첫째, 청년층의 요구와 생활양식에 맞는 맞춤형 서비스를 설계하고, 둘째, 경제적 기회 창출 및 안정적 일자리를 제공하는 연계 프로그램을 개발하며, 셋째, 청년층의 사회적 참여를 촉진하고 지역사회와의 유대를 강화하는 커뮤니티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넷째, 지역 내 이해관계자와의 협력을 통해 다각적 지원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ABSTRACT

This study identifies that library cultural and welfare services play a critical role in preventing the outflow of young people and attracting economically active populations, thereby enhancing the sustainability of local communities, and proposes specific strategies to achieve this goal. The findings reveal that libraries can function as vital hubs by providing practical services such as vocational training, entrepreneurial support, and community networking, enabling young people to establish a stable foundation and settle in their communities. Based on these insights, the study proposes four strategic approaches for expanding the role of libraries: first, designing customized services tailored to the needs and lifestyles of young people; second, developing linkage programs that create economic opportunities and provide stable employment; third, operating community programs that promote social participation and strengthen the connection between young people and the local community; and fourth, establishing multi-faceted support systems through collaboration with local stakeholders.

키워드: 인구소멸 위기 지역, 청년층 정착, 도서관 역할의 확대, 지역사회 지속 가능성, 맞춤형 도서관 서비스
Population Decline Crisis Areas, Youth Settlement, Expansion of Library Roles, Community Sustainability, Customized Library Services

* 건국대학교 지식콘텐츠연구소(miki0913@naver.com) (제1저자)

** 건국대학교 문헌정보학과 교수(irs4u@kku.ac.kr) (교신저자)

논문접수일자 : 2025년 2월 10일 논문심사일자 : 2025년 2월 10일 게재확정일자 : 2025년 2월 21일
한국비블리아학회지, 36(1): 5-39, 2025. <http://dx.doi.org/10.14699/kbiblia.2025.36.1.005>

* Copyright © 2025 Korean Biblia Society for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This is an Open Access article distributed under the terms of the Creative Commons Attribution-NonCommercial-NoDerivatives 4.0 (<https://creativecommons.org/licenses/by-nc-nd/4.0/>) which permits use, distribution and reproduction in any medium, provided that the article is properly cited, the use is non-commercial and no modifications or adaptations are made.

1. 서론

대한민국 수도권 인구는 2019년 관측 이래 처음으로 전체 인구의 50%를 초과하며, 수도권 집중화 현상이 더욱 심화되고 있다. 전 국민의 절반 이상이 수도권에 과밀하게 몰려 거주하고 있으며, 이러한 현상은 1980년대 이후 지속적으로 이어져 온 구조적 문제로 자리 잡았다. 수도권 집중은 수도권 인근 지역인 강원권과 충청권은 물론, 경남권과 호남권에서도 수도권으로 인구가 유입되는 이동 경향을 보이고 있다. 이 가운데 부산 지역에서 수도권으로의 인구 유출은 가속화되고 있는 실정이다. 다수의 선행 연구와 언론 보도(김대래, 2019; 오정일, 안기돈, 2007; 홍기석, 윤태영, 2019)에 따르면, 부산시에서 수도권으로의 인구 이동이 심화되고 있으며, 이는 지역의 활력과 성장 동력을 감소시키는 주요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음을 지적한다. 통계청(2021)의 국내 인구 이동 통계에 따르면, 2021년 2월까지 두 달 동안 부산을 떠난 인구는 2,746명으로 전년 동기 대비 71.5% 증가하였으며, 이 중 94.7%가 수도권으로 이동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현상은 일시적인 문제가 아니라 장기적인 구조적 문제로, 2015년 수도권으로의 인구 유출 규모가 4,155명이었던 데 비해 2020년에는 13,937명으로 급증하며 점차 심화되고 있다(부산광역시, 2021). 특히, 인구 유출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계층은 20~30대 청년층으로, 이는 부산시가 직면한 가장 심각한 문제로 평가된다. 2021년 1분기 동안 부산을 떠난 20~29세 청년층 인구는 1,146명으로, 전년 동기 대비 12.5배 증가한 수치를 기록하였다(통계청, 2021). 부산시는 전체 인

구 감소와 고령화가 동시에 진행되는 상황에서, 청년층의 지속적인 유출로 인해 지역사회와 경제 전반에 걸친 부정적 영향을 경험하고 있으며, 전문가들은 이러한 현상이 장기적으로 지역의 경제·인구·사회 구조에 심각한 부작용을 초래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홍기석, 윤태영, 2019). 수도권으로의 인구 이동 요인은 전통적으로 생애주기별 환경 변화와 경제적 원인으로 분석되었으나, 삶의 질에 대한 관심 증가와 함께 교육, 문화, 교통, 의료, 주택 등 사회문화적 요인도 주요 요인으로 부각되고 있다(마상열 외, 2009; 이왕건, 2005; 정기성, 홍사흠, 2019). 이러한 배경에서 수도권으로의 인구 이동 현상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인구·사회·경제적 요인뿐만 아니라 삶의 질과 관련된 요인들을 포괄적으로 고려하는 분석이 필요하다.

본 연구는 이러한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부산 지역의 경제활동 인구 및 청년층 유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공공도서관의 역할과 문화복지 서비스 가능성을 탐색하는 데 목적을 둔다. 특히, 인구소멸 위기가 우려되는 지역에서 청년층 유출의 심각성에 주목하며, 공공도서관이 청년층 유입과 정착을 지원하는 지역사회 거점으로 기능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세부 목적을 설정하였다. 첫째, 부산 지역 내 인구소멸 구의 지정 원인과 청년층 유출의 배경을 분석하고, 지역 인구 구조와 청년층 유출에 영향을 미치는 사회·경제적 요인을 규명하고자 한다. 둘째, 청년층이 지역을 떠나는 주요 원인을 파악하고, 지역에 남기 위한 조건과 요구 사항을 구체적으로 분석하여, 청년층의 기대와 요구를 반영한 도서관 서비스 모델을 설계한다. 셋째, 공공

도서관이 단순한 정보 제공 공간을 넘어 지역 사회와 청년층을 연결하는 문화복지 중심지로서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한다. 이를 위해 도서관이 제공할 수 있는 교육, 문화, 복지, 네트워킹, 창업 지원 등의 다각적 서비스를 연구하고, 이를 통해 청년층 유입 및 정착을 도모하는 방안을 제안한다. 넷째, 공공도서관이 지역사회 내 다양한 이해관계자와 협력하여 청년층 요구를 충족시키고, 실질적인 청년 유출 완화 효과를 가져올 수 있는 정책적 대안을 도출한다.

2. 선행연구

지방소멸과 지역 도서관에 관련된 선행연구로, 정윤희(2019)는 도서관정책, 독서정책, 출판정책 간의 긴밀한 연결성을 강조하며, 건강한 책문화의 지속적 성장을 위한 정책적 방안을 연구하였다. 연구 결과, 정책 수립 초기부터 책문화 정책 협력 시스템을 구축하고, 정책 추진 과정에서 장·단기 상호보완 평가 시스템을 마련해야 한다고 제안하였다. 특히, 출판정책, 도서관정책, 독서정책이 장기적 관점에서 통합적으로 수립·조율·시행될 필요성을 강조하며, 이를 위한 책문화 정책 컨트롤타워 조직 구성을 제안하였다. 또한 지방정부가 책문화를 주도하고 중앙정부는 이를 지원하는 '지역 주도-중앙 지원' 체계를 구축할 것을 권고하였다.

해외에서도 지역소멸 문제 해결을 위해 지역 도서관이 단순한 정보 제공을 넘어 지역사회 결속 강화 및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는 방향으로 변화하고 있음을 보여준다(Sherman &

Oakley, 2024). 특히, 도서관의 시민 참여 프로그램(Young et al., 2020), 공공 협력 프로젝트(Cigarini et al., 2020), 디지털 인프라 구축(Johnston et al., 2024) 등이 지역사회의 지속가능성을 높이는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이에 따라 정책적 지원과 도서관의 전략적 역할 재정립이 필요하며, 구체적인 사례 분석을 통해 도서관의 지역사회 통합 기능을 강화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Harwood, 2023; Lenstra et al., 2022).

한편, 청년층의 유출을 방지하기 위한 연구로서, 이현국과 강영환(2019)은 청년 인구 변화에 지역 어메니티(amenity)가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연구 결과, 교육시설 및 서비스 어메니티는 청년 인구 변화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며, 복지시설 또한 신흥 지역을 중심으로 청년 인구 유입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는 청년층의 왕래가 잦은 지역에 도서관과 같은 공공 공간을 배치하여 지역 내 어메니티로 활용할 필요성을 강조하며, 이를 통해 청년층 정착을 도모할 수 있음을 시사하였다. 김윤희와 공순구(2023)는 국내 교육 행정구조 시스템을 분석하고, 대학도서관과 학교도서관 간 협력 네트워크를 설정하는 방안을 연구하였다. 연구 결과, 인구 감소 시대를 대비하여 대학과 학교 공간의 변화가 필수적이며, 공공도서관과 협력하여 지역 주민과 청년층이 함께 활용할 수 있는 공간으로의 기능 전환이 필요하다고 제안하였다. 또한, 단위지역 공동 보존서고의 기능 강화와 체계적 시스템 정립의 필요성을 제시하였다.

한편, 도서관 기능 확대와 청년 정착에 관한 연구로, 김지영(2023)은 청년 1인 가구의 사회

적 고립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독서모임 프로그램 개발을 연구하였다. 연구 결과, 독서모임은 청년 1인 가구가 필요한 정보를 습득하고 사회적 유대감을 형성하는 데 효과적임을 확인하였다. 저자는 독서모임 프로그램이 자존감을 고취하고, 청년층이 지역 사회와 연결성을 강화할 수 있도록 설계되어야 한다고 강조하며, 그림책 독서모임, 체험과 연계한 독서모임, 마음 건강을 다루는 독서모임 등 다양한 프로그램 유형의 필요성을 제안하였다. 임미리(2023)는 청년들이 공공도서관 독서모임에 참여하는 이유와 방식에 대해 연구를 수행하였다. 연구 결과, 청년층은 실무적 네트워크 형성을 위해 독서모임에 참여하며, 공간의 분위기가 독서모임 활성화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나타났다. 특히, 온오프라인을 혼합적으로 활용하여 도서관 공간을 청년층의 니즈에 맞추는 방안을 모색해야 함을 시사하였다.

선행연구 분석결과, 지방소멸과 청년 정착, 도서관의 역할에 대한 연구는 점진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나, 도서관 기능 확대와 청년층 정착의 구체적 연계에 대한 연구는 여전히 미흡한 실정임을 알 수 있다. 정윤희(2019)는 지역 주도의 정책적 협력을 강조하며, 중앙정부와의 지원 체계를 기반으로 책문화를 발전시키는 방향을 제안하였다. 이현국과 강영환(2019)은 어메니티 배치를 통해 청년 인구 유입을 도모할 필요성을 제시하였으며, 김윤희와 공순구(2023)는 인구 감소 시대에서 공공도서관과의 협력 및 공동 보존 공간 기능 강화의 필요성을 강조하였다. 김지영(2023)과 임미리(2023)는 독서모임이 청년층의 사회적 유대감 형성과 고립 문제 해결에 효과적임을 확인하며, 프로그램의

다양성과 공간 분위기의 중요성을 언급하였다. 이러한 선행연구를 바탕으로, 소멸 위기에 처한 지방에서 도서관이 청년층 정착과 지역 사회 활성화를 위해 수행해야 할 역할과 기능을 심층적으로 분석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청년층의 요구를 직접적으로 반영할 수 있는 실증적 조사와 사례 분석을 통해 실질적이고 실행 가능한 방안을 모색하는 연구가 필요하다.

3. 연구질문

본 연구는 부산 지역 내 인구 감소 지역에서 청년층의 지역 유출을 방지하고, 경제활동 인구의 지속적인 유치를 지원하기 위한 도서관 서비스에 관한 연구로, 인구소멸 위기 지역에서 공공도서관이 수행할 수 있는 역할과 서비스 확대 방안을 제안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해 다음과 같은 연구문제를 설정하였다.

- RQ 1. 지방소멸의 주요 원인은 무엇이며, 공공도서관에서 지방소멸 대응을 위한 사례가 있는가?
- RQ 2. 연령에 따라 지역소멸 대응 기관으로서의 도서관 역할에 대한 인식에 차이가 있는가?
- RQ 3. 성별에 따라 지역소멸 대응 기관으로서의 도서관 역할에 대한 인식에 차이가 있는가?
- RQ 4. 도서관 이용 빈도에 따라 지역소멸 대응 기관으로서의 도서관 역할에 대한 인식에 차이가 있는가?
- RQ 5. 인구소멸 위기 지역에서 도서관의

기능 확대와 청년층의 정착을 위한 효과적인 방안은 무엇인가?

본 연구는 이러한 연구문제를 통해 도서관이 인구소멸 위기 지역에서 지역사회와 청년층을 연결하는 핵심 거점으로서 어떠한 역할을 수행해야 하는지를 규명하고, 도서관 서비스의 실질적 개선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4. 연구설계 및 방법론

4.1 연구절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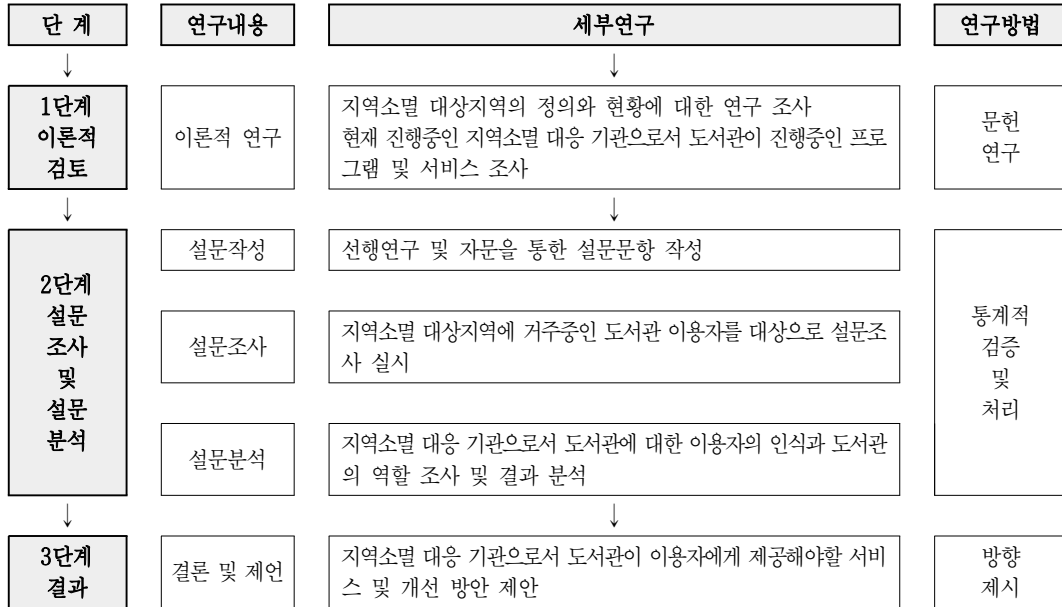
본 연구는 지역소멸 대응 기관으로서 도서관의 역할 변화에 대한 이용자 인식을 조사하고, 지역소멸 대상 지역에서 도서관이 수행해야 할 역할과 기능을 규명하는 데 목적을 두었다. 이를 위해 이론적 근거와 사례를 기반으로 도서관의 역할 변화에 관한 조사 연구를 시행하였다. 특히, 도서관의 역할 변화에 대한 이용자의 인식을 분석함으로써 지역소멸 대응 기관으로서의 도서관 운영 방향성을 도출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지역소멸 대상 지역의 도서관 이용자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도서관이 지역소멸 대응 기관으로서 수행해야 할 역할과 기능에 대한 이용자들의 의견과 실태를 파악하였다. 설문조사에서는 지역소멸 대상 지역 도서관 이용자들의 도서관 이용 실태, 지역소멸에 대한 인식, 그리고 도서관 서비스와의 상관성을 중심으로 조사하였다. 또한, 도서관이 지역소멸 대응 기관으로서 지향해야 할 목표와 방향성에 대해 분석하였다. 본 조사는 부산 지

역의 지역소멸 대상 지역 도서관 이용자를 대상으로 온라인 설문조사 방식을 통해 이루어졌으며, 수집된 설문 데이터를 분석하여 지역소멸 대상 지역 도서관의 이용자 인식을 바탕으로 도출된 목표 지점과 이행해야 할 역할을 제시하였다.

이와 같은 연구 결과는 지역소멸 대응 기관으로서 도서관의 운영 방향성을 모색하고, 지역사회 활성화와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한 도서관의 역할을 구체화하는 데 기여하고자 한다. 본 연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연구 절차는 <그림 1>에 제시되어 있다.

본 연구는 지역소멸 대응 기관으로서 공공도서관이 수행해야 할 서비스와 지향점을 규명하기 위해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설문지는 응답자의 기본 정보를 파악하기 위한 문항(3문항), 도서관 이용 실태를 조사하기 위한 문항(2문항), 지역소멸과 도서관 서비스 간의 관계를 분석하기 위한 문항(12문항), 그리고 지역소멸 대응 기관으로서 공공도서관 서비스 이용 경험을 묻는 문항(3문항)으로 총 20문항으로 구성되었다. 본 연구에서 사용된 설문 문항은 지역소멸 대응 기관으로서의 공공도서관의 역할 변화에 관한 선행연구(노영희, 강정아, 2024)의 설문 문항을 참고하여 개발하였다(<표 1> 참조).

본 연구는 2024년 11월 1일부터 2024년 11월 11일까지 진행되었으며, A광역시에 거주 중이고 A광역시 소재 도서관을 방문한 경험이 있는 이용자를 대상으로 온라인 설문조사를 통해 데이터를 수집하였다. 설문대상자 확보를 위해 A 지역 중 최고 인구감소 지역을 선정하고, 그 지역의 도서관의 주변 청년층만을 선정하였다. 그리고, 도서관의 역할 및 서비스 관련



〈그림 1〉 연구 절차 및 연구내용

〈표 1〉 설문지의 구성

측정 영역	내용	문항수
응답자 기본정보	<ul style="list-style-type: none"> 연령 성별 거주지 	2
도서관 이용실태	<ul style="list-style-type: none"> 도서관 방문 빈도 도서관 방문 목적 	2
지역소멸과 도서관 서비스와의 관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지역소멸 지역 인지 여부 이용자의 도서관의 역할에 대한 인식 도서관 이용자의 지역소멸의 요인 인식 도서관역할의 적합도 도서관이 갖춰야할 요건 	12
지역소멸 대응 기관으로서 공공도서관 서비스 이용 경험	<ul style="list-style-type: none"> 지역소멸 대응 서비스 이용 유무 이용해본 서비스의 종류 	3

문항에 대해 이해를 돕기 위해 개념 및 용어 설명을 설문지 내에 포함하였다.

총 189부의 설문지가 회수되었으며, 불성실한 응답과 결측값을 제외한 최종 161부를 분석 대상으로 선정하여 연구를 수행하였다. 분석방법

으로서, 도서관 이용자들의 인식을 확인하기 위하여 빈도분석, 교차분석(χ^2), t-test, 분산분석(Anova)을 사용하였으며 사후분석(Post-hoc)으로는 Scheffe를 사용하였다.

4.2 연구대상

본 연구는 지역소멸 대응 기관으로서의 도서관 역할 변화를 탐구하기 위해, 소멸 지역에 위치한 도서관 이용자들의 인식을 확인하고자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본 연구에 참여한 설문 응답자들의 인구통계학적 특성은 <표 2>에 제시되어 있다.

세부적인 분석 결과, 연령 분포는 10대 23%, 20대 18%, 30대 31.7%, 40대 27.3%로 나타나, 30대 이상의 응답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음을 확인하였다. 성별 분포는 남성 37.9%, 여성 62.1%로, 여성 응답자가 남성보다 높은 비율을 보였다. 거주 지역에 대한 분석에서는 해운대구가 25.5%로 가장 많았으며, 동래구 19.9%, 북구 18%, 동구 10.6%, 사상구 9.9% 순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에 참여한 대상자들의 도서관 이용 현황을 분석한 결과, 주 1~3회 이용은 13.0%, 월 1~3회 이용은 16.1%, 반년간 1~3회 이용은

14.9%, 연간 1~3회 이용은 20.5%, 거의 이용하지 않음은 35.4%로 나타났다. 도서관 이용 목적에 대한 설문에서는 도서 대출 및 독서가 50.7%로 과반수를 차지했으며, 그다음으로 개인 공부 26.2%, 정보 검색 10.2%, 도서관 문화 프로그램 참여 4.9%의 순으로 분석되었다(<표 3> 참조).

5. 연구결과

5.1 지역소멸과 도서관의 관련성에 대한 이용자 인식

5.1.1 지역소멸 요인에 대한 인식

지역소멸 요인에 대한 다중응답 분석 결과는 <표 4>에 제시되어 있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수도권과 비수도권 간 격차 확대가 29.8%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였으며, 그다음으로 지방 인구 감소 가속화 23.0%, 지방경제 성장률

<표 2> 인구통계학적 특성

항목	빈도(n)	퍼센트(%)	
연령	10대	37	23.0
	20대	29	18.0
	30대	51	31.7
	40대	44	27.3
성별	남성	61	37.9
	여성	100	62.1
거주 구	사상구	16	9.9
	북구	29	18.0
	해운대구	41	25.5
	영도구	5	3.1
	동래구	32	19.9
	동구	17	10.6
	서구	9	5.6
	사하구	12	7.5

〈표 3〉 대상자의 도서관 이용현황

문항		빈도	퍼센트
도서관 이용빈도	주 1~3회	21	13.0
	월 1~3회	26	16.1
	반년간 1~3회	24	14.9
	연간 1~3회	33	20.5
	거의 이용하지 않음	57	35.4
도서관 이용 목적*	도서 대출 및 독서	114	50.7
	정보검색	23	10.2
	도서관 문화프로그램 참여	11	4.9
	인터넷 및 PC 이용	3	1.3
	개인공부	59	26.2
	동아리 및 지역모임 참여	6	2.7
	기타	9	4.0

* 다중응답

〈표 4〉 지역소멸 요인

문항		N	%
지역소멸 요인*	수도권과 비수도권간의 격차 확대	109	29.8
	지방 인구 감소 가속화	84	23.0
	중앙정부 주도적 정책으로 실질적 성과 창출에 한계	40	10.9
	지방경제 성장을 둔화와 저성장 고착화	73	19.9
	교육과 정주여건 격차 확대	52	14.2
	기타	8	2.2

* 다중응답

둔화와 저성장 고착화 19.9%, 교육과 정주 여건 격차 확대 14.2%, 중앙정부 주도적 정책의 실질적 성과 창출 한계 10.9% 순으로 나타났다. 이는 지역 간 격차와 지방의 구조적 문제가 지역소멸의 주요 요인으로 인식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5.1.2 지역소멸과 도서관 서비스의 관계 및 역할

도서관 이용자들의 지역소멸과 도서관 서비스의 관계에 대한 인식을 분석한 결과와 같다. 이용 중인 도서관이 지역소멸 대상 지역에 위치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는지에 대

한 설문에서 '아니오' 응답이 86.3%로, 대다수의 응답자가 도서관이 지역소멸 대상 지역에 위치하고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소멸이 도서관에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하는지에 대한 설문 결과는 1.86 ± 0.34 로, 동의하지 않는 인식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반면, 청년 인구의 수도권 쏠림 현상을 도서관 서비스 개선을 통해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지에 대한 설문 결과는 3.75 ± 1.00 으로, 보통 이상의 인식을 보였다. 지역소멸에 대응하는 해법으로 도서관 건립 및 운영이 적합하다고 생각하는지에 대한 설문에서는 2.68 ± 1.00 으로 부

정적인 인식이 높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그러나 지역소멸 대응 기관으로서 도서관이 지역의 지속 가능성을 위한 중심 문화기관으로서의 역할을 충분히 수행해야 한다고 생각하는지에 대한 설문 결과는 3.26±0.99로, 보통 이상의 긍정적인 인식을 확인할 수 있었다(〈표 5〉 참조).

지역소멸 대응 기관으로서 도서관의 지역 활성화 및 지역소멸 방지에 대한 기여도를 분석한 결과, 문화 격차 해소가 3.70±0.97로 관련 항목 중 가장 높은 긍정적 인식을 나타냈다. 그다음으로는 도시재생이 3.27±0.94로 긍정적인 인식을 보였다. 반면, 지역사회 경제 활성화는 2.88±0.98

로, 도서관에 의한 경제적 및 문화적 파급효과를 위한 인구 유입은 2.79±1.00으로 나타나, 해당 항목들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인식이 상대적으로 높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를 통해 도서관의 문화적 역할에 대한 기대는 크지만, 경제적 기여에 대한 신뢰는 낮은 편임을 본 분석 결과가 시사하고 있다(〈표 6〉 참조).

지역소멸 대응 기관으로서 도서관의 역할 적합도에 대한 분석 결과는 〈표 7〉에 제시되어 있다. 가장 높은 적합도를 보인 항목은 “문화복지 격차 해소를 위한 복합문화공간으로서의 도서관”으로, 3.93±0.94로 나타났다. 그다음으로는

〈표 5〉 지역소멸과 도서관 서비스의 관계 인식

문항	M	SD
지역소멸이 도서관에 영향	1.86	.34
청년인구의 수도권 쏠림 현상을 도서관 서비스의 개선으로 해결 가능성	3.75	1.08
지역소멸에 대응하는 해법으로 도서관 건립 및 운영이 적합	2.68	1.00
지역소멸 대응 기관으로서 도서관이 지역의 지속가능성을 위한 중심문화기관으로서의 역할	3.26	.99

〈표 6〉 지역소멸 대응 기관으로서 도서관 지역 활성화 및 지역소멸방지기여도

문항	M	SD
지역사회 경제 활성화	2.88	.98
도시재생	3.27	.94
문화 격차 해소	3.70	.97
도서관에 의한 경제적 및 문화적 파급효과를 위한 인구 유입	2.79	1.00

〈표 7〉 지역소멸 대응 기관으로서 도서관의 역할의 적합도

문항	M	SD
지역 정체성을 담는 지역문화 클러스터 중심 도서관	3.46	.89
지역의 문제해결 공간으로서의 도서관	3.32	.93
개인 취향까지 만족시키는 공간으로서의 도서관	3.48	.94
정보격차 해소를 위한 디지털 공간	3.74	.98
문화복지 격차 해소를 위한 복합문화공간으로서의 도서관	3.93	.94
정주기반 개선을 위한 사회안전망 도서관	3.48	.92
도시재생과 지역활성화 매개체로서 도서관	3.51	.91

“정보격차 해소를 위한 디지털 공간” 3.74±0.98, “도시재생과 지역 활성화 매개체로서 도서관” 3.51±0.91, “개인 취향까지 만족시키는 공간으로서의 도서관” 3.48±0.94, “정주 기반 개선을 위한 사회안전망 도서관” 3.48±0.92 순으로 나타났다. 반면, 가장 낮은 적합도를 보인 항목은 “지역의 문제 해결 공간으로서의 도서관”으로, 3.32±0.93으로 파악되었다. 이 결과는 도서관이 지역 내 문화복지와 정보 접근성 문제 해결에 적합한 역할을 수행할 것으로 기대되는 반면, 지역 문제 해결의 구체적인 역할에 대해서는 인식이 다소 낮음을 시사한다.

5.1.3 지역소멸 대응 기관으로서 도서관 역할 수행에 필요한 외부 지원 적합도
 지역소멸 대응 기관으로서 도서관 역할 수행에 필요한 외부 지원의 적합도를 분석한 결과

는 <표 8>에 제시되어 있다. 가장 높은 적합도를 보인 문항은 “지자체의 적극적 예산 지원”으로, 3.92±0.91로 나타났으며, 그다음으로 “지역 특성을 반영한 문화기관으로서 도서관 확충”이 3.91±0.86, “중앙정부의 예산 지원”이 3.82±0.99로 나타났다. 반면, 가장 낮은 적합도를 보인 항목은 “사회문제 해결을 위한 법률 및 정책 지원”으로, 3.48±0.96으로 분석되었다. 이 결과는 도서관 역할 강화에 있어 재정적 지원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이 가장 높으며, 법률 및 정책 지원에 대한 인식은 상대적으로 낮음을 시사한다.

본 연구에 참여한 대상자들의 지역소멸 대응 기관으로서 도서관이 제공하는 서비스에 대한 인식을 분석한 결과는 <표 9>에 제시되어 있다. 가장 높은 인식을 보인 항목은 “문화 복지 격차 해소를 위한 다양한 고품질의 문화 인프라 확충 서비스”로, 3.98±0.81로 나타났다. 그다음으로는

<표 8> 지역소멸 대응 기관으로서 도서관 역할 수행에 필요한 외부 지원 적합도

문항	M	SD
사회문제 해결을 위한 법률 및 정책지원	3.48	.96
중앙정부의 예산지원	3.82	.99
지자체의 적극적 예산지원	3.92	.91
지역 특성을 반영한 문화기관으로서 도서관 확충	3.91	.86
중앙 및 지방자치단체 간 협력강화	3.73	.88

<표 9> 지역소멸 대응 기관으로서 도서관 제공 서비스

문항	M	SD
지역의 경제적 활력을 제공할 수 있는 다양한 서비스 개발·제공	3.79	.87
불평등 해소를 위한 서비스 개발·제공	3.84	.91
고령자 대응, 복지향상을 위한 세분화 된 문화 프로그램 기획·제공	3.95	.76
인구유치 측면의 외부인 유입을 위한 세분화된 문화프로그램 기획·제공	3.70	.94
지역이 정체성을 담는 차별화된 특화 서비스	3.89	.85
문화 복지 격차 해소를 위한 다양한 고품질의 문화 인프라 확충서비스	3.98	.81
지역문제 해결의 공간으로서, 지역주민 및 활동가들의 소통·참여·협력 촉진 프로그램	3.91	.80

“고령자 대응 및 복지 향상을 위한 세분화된 문화 프로그램 기획·제공”이 3.95±0.91, “지역 문제 해결의 공간으로서 지역 주민 및 활동가들의 소통·참여·협력 촉진 프로그램”이 3.91±0.80, “지역의 정체성을 담는 차별화된 특화 서비스”가 3.89±0.85 순으로 확인되었다. 반면, 가장 낮은 인식을 보인 서비스는 “인구 유치 측면에서 외부인 유입을 위한 세분화된 문화 프로그램 기획·제공”으로, 3.70±0.94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연구 참여자들이 도서관의 문화 복지 서비스와 문화 프로그램 제공에 대해 높은 선호도를 보이며, 지역 내 문화적 격차 해소와 특화된 프로그램 개발의 필요성을 중요하게 인식하고 있음을 시사한다.

한편, 위의 문항에 응답한 응답자로서, 지역소멸 대응 기관으로서 공공도서관 서비스 이용 경험에 대한 분석 결과, “예”라고 응답한 참여자는 3.7%였으며, “아니오”라고 응답한 참여자

는 96.3%로 나타났다. 이를 통해 본 연구에 참여한 대다수의 응답자가 지역소멸 대응 기관으로서의 공공도서관 서비스 이용 경험이 없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 결과는 공공도서관이 지역소멸 대응 역할을 수행하기 위한 서비스 접근성과 홍보 부족이 있음을 시사한다.

한편, 지역사회를 위한 도서관이 갖추어야 할 요건 및 조건에 대한 분석 결과는 <표 10>에 제시되어 있다. 도서관이 지역사회에서 지속 가능한 문화 및 경제적 영향을 미치기 위해 갖추어야 할 요건으로는 “복합문화공간으로서의 역할”이 26.9%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그다음으로 “지역의 문화적, 경제적, 사회적 활력을 불어넣는 문화적 인프라”가 23.3%, “전통적 도서관의 틀을 벗어난 공간구조”가 19.4%로 파악되었다. 반면, 가장 낮은 응답률을 보인 항목은 “체류 환경 개선을 통한 체재형 도서관”으로 5.9%로 분석되었다.

<표 10> 지역사회를 위한 도서관이 갖추어야 할 요건 및 조건

문항		N	%
지역사회에서 지속 가능한 문화 및 경제적 영향을 미치기 위해 갖추어야 할 요건*	지역의 문화적, 경제적, 사회적 활력을 불어넣는 문화적 인프라	99	23.3
	전통적 도서관의 틀을 벗어난 공간구조	64	15.1
	체류 환경 개선을 통한 체재형 도서관	25	5.9
	복합문화공간(도서관, 미술관 등)으로서의 역할	114	26.9
	지역의 문화적 자산 역할	44	10.4
	지역 관광자원과의 연계를 통한 도서관 문화의 산업화	32	7.5
	지역환경에 적합한 도서관 역할 모색	43	10.1
	기타	3	0.7
지역소멸 대상 지역에서의 도서관이 청년층 인구의 유지를 위해 갖추어야 할 조건*	개발형 복합문화공간	102	30.3
	신기술과의 결합을 통한 새로운 운영방식	55	16.3
	도서관 중심의 지역공동체 아카이브 구축 및 운영	45	13.4
	체험형 프로그램의 증가	57	16.9
	문화 복지 격차해소	76	22.6
	지역 커뮤니케이션을 중심으로 지역 정착지원	2	0.6

* 다중응답

또한, “지역소멸 대상 지역에서의 도서관이 청년층 인구 유지를 위해 갖춰야 할 조건”에 대한 분석에서는 “개발형 복합문화공간”이 30.3%로 가장 높은 응답률을 기록하였으며, 이어서 “문화복지의 격차 해소”가 22.6%, “체험형 프로그램의 증가”가 16.9%, “신기술과의 결합을 통한 새로운 운영방식”이 16.3%로 나타났다. 가장 낮은 응답률을 보인 조건은 “지역 커뮤니케이션을 중심으로 지역 정착 지원”으로 0.6%로 확인되었다.

5.2 연령에 따른 지역소멸 대응 기관으로서의 도서관 역할 인식 차이

5.2.1 연령에 따른 지역소멸 대상 위치 인식 차이

연령에 따른 지역소멸 대상 위치 인식 차이를 분석한 결과, 지역소멸 대상 위치를 인지하고 있는 응답자는 13.7%, 인지하지 못한 응답자는 86.3%로 나타났다. 이 결과는 연령대별 지역소멸 대상 위치 인식에 차이가 있지만, 대다수의 응답자가 지역소멸 대상 위치를 인지하지 못하고 있음을 시사한다. 통계 분석 결과, 연령에 따른 차이는 유의미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었다($\chi^2 = 2.301, df = 3, p = .512$) (<표 11> 참조).

5.2.2 연령에 따른 지역소멸에 관한 인식 차이

연령에 따른 지역소멸에 관한 인식 차이를 분석한 결과, “지역소멸 도서관 영향”에 대한 평균 점수는 10대 3.57, 20대 3.45, 30대 3.78, 40대 4.07로 나타났으며, 연령대별로 유의미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청년인구 수도권 쏠림 현상 도서관 서비스 개선으로 해결”에 대한 평균 점수는 10대 2.59, 20대 2.55, 30대 2.22, 40대 2.20으로, 마찬가지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지역소멸 해법 도서관 건립 및 운영”에 대해서는 10대 2.86, 20대 2.51, 30대 2.82, 40대 2.90의 평균 점수를 보였으며, 연령별 차이는 유의하지 않았다. “도서관이 지역의 지속가능성을 위한 중심문화기관으로서의 역할”에 대해서는 10대 3.12, 20대 3.20, 30대 3.28, 40대 3.20의 평균 점수를 기록했으며, 연령에 따른 유의미한 차이는 없었다($F = .477, p = .699$).

결과적으로, 분석된 모든 항목에서 연령대에 따른 인식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지역소멸과 관련한 도서관의 역할에 대한 인식이 연령대에 상관없이 비교적 유사하게 나타남을 시사한다(<표 12> 참조).

<표 11> 연령에 따른 지역소멸 대상 위치 인식 차이

항목		지역소멸대상위치		총계
		예	아니오	
연령	10대	4(18.2%)	33(23.7%)	37(23.0%)
	20대	6(27.3%)	23(16.5%)	29(18.0%)
	30대	5(22.7%)	46(33.1%)	51(31.7%)
	40대	7(31.8%)	37(26.6%)	44(27.3%)
총계		22(100.0%)	139(100.0%)	161(100.0%)

〈표 12〉 연령에 따른 지역소멸에 관한 인식 차이

항목		N	M	SD	F	p	Scheffe
지역소멸 도서관 영향	10대	37	3.57	1.12	2.470	.064	NS
	20대	29	3.45	1.12			
	30대	51	3.78	1.15			
	40대	44	4.07	.85			
청년인구 수도권 쏠림 현상 도서관 서비스개선으로 해결	10대	37	2.59	1.30	1.097	.352	
	20대	29	2.52	1.12			
	30대	51	2.29	1.04			
	40대	44	2.20	.95			
지역소멸 해법 도서관 건립 및 운영	10대	37	2.62	.98	1.146	.332	
	20대	29	2.86	.95			
	30대	51	2.51	1.10			
	40대	44	2.82	.90			
도서관이 지역의 지속가능성을 위한 중심문화기관으로서의 역할	10대	37	3.43	.93	.477	.699	
	20대	29	3.21	.90			
	30대	51	3.22	1.17			
	40대	44	3.20	.88			

5.2.3 연령에 따른 도서관의 지역활성화 및 지역소멸 방지 기여 인식 차이

연령에 따른 도서관의 지역 활성화 및 지역소멸 방지 기여 인식 차이를 분석한 결과, “지역사회 경제 활성화”에 대한 평균 점수는 10대 3.08, 20대 2.76, 30대 2.76, 40대 2.91로 나타났으며,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는 없었다. “도시재생”에 대한 인식은 10대 3.59, 20대 3.17, 30대 3.27, 40대 3.27로 분석되었으며, 유의미한 차이는 보이지 않았다($F = 2.181, p = .092$). 반면, “문화 격차 해소” 항목에서는 연령별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나타났다($F = 2.960, p = .034$). 10대(4.05)가 가장 높은 평균 점수를 기록했으며, 20대(3.38)와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a > b$). “경제적 및 문화 파급 효과를 위한 인구 유입” 항목에서는 10대 3.11, 20대 2.69, 30대 2.57, 40대 2.84로 나타났으나, 유의미한 차이는 없었다($F = 2.257, p = .084$).

이 결과는 연령별로 도서관이 문화 격차 해소에 기여하는 역할에 대한 인식에서 차이가 있음을 보여주며, 특히 10대가 해당 항목에서 높은 기대감을 보인 반면, 다른 항목에서는 연령대 간 차이가 유의미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도서관의 문화적 역할에 대한 청소년층의 높은 기대를 반영하며, 정책적 및 프로그램 개발에 있어 이를 고려할 필요성을 시사한다(〈표 13〉 참조).

5.2.4 연령에 따른 지역소멸 대응 기관으로서 도서관 역할 적합도 인식 차이

연령에 따른 지역소멸 대응 기관으로서 도서관 역할 적합도에 대한 분석 결과, 지역 정체성을 담는 지역문화 클러스터 중심 도서관에 대한 인식은 연령대별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F = 3.407, p = .019$). 10대가 평균 3.76으로 가장 높은 점수를 기록하였으며,

〈표 13〉 연령에 따른 도서관의 지역활성화 및 지역소멸 방지 기여 인식 차이

항목		N	M	SD	F	p	Scheffe
지역사회 경제 활성화	10대	37	3.08	1.01	.914	.436	
	20대	29	2.76	1.02			
	30대	51	2.76	.99			
	40대	44	2.91	.91			
도시재생	10대	37	3.59	.90	2.181	.092	
	20대	29	3.17	1.10			
	30대	51	3.10	.96			
	40대	44	3.27	.79			
문화격차해소	10대	37	4.05	.88	2.960	.034*	a>b
	20대	29	3.38	1.15			
	30대	51	3.71	1.04			
	40대	44	3.59	.76			
경제적 및 문화파급 효과를 위한 인구유입	10대	37	3.11	.99	2.257	.084	
	20대	29	2.69	1.04			
	30대	51	2.57	1.02			
	40대	44	2.84	.91			

* $p < .05$, ** $p < .01$

이는 20대(3.07)보다 유의하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의 문제 해결 공간으로서의 도서관에 대한 평균 점수는 연령대별 차이가 크지 않았으며($F = 0.685, p = .563$),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개인 취향까지 만족시키는 공간으로서의 도서관에 대한 인식에서는 연령대별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났다($F = 3.895, p = .010$). 10대가 평균 3.92로 가장 높은 점수를 보였으며, 이는 20대(3.28)와 30대(3.31)보다 유의하게 높았다. 정보격차 해소를 위한 디지털 공간에 대한 인식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았다. 문화복지 격차 해소를 위한 복합문화공간으로서의 도서관에 대한 인식은 연령대별로 유의미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F = 2.263, p = .083$). 정주 기반 개선을 위한 사회안전망 도서관에 대한 인식은 연령대별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F

= 4.965, $p = .003$). 20대(2.93)가 상대적으로 낮은 점수를 보였으며, 이는 10대(3.39), 30대(3.55), 40대(3.57)보다 유의하게 낮았다. 도시재생과 지역활성화 매개체로서의 도서관에 대한 인식에서도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확인되었다($F = 2.851, p = .039$). 그러나 구체적인 그룹 간 차이는 Scheffe 사후 검정에서 명확히 나타나지 않았다.

이러한 결과는 연령대별로 도서관 역할에 대한 인식 차이가 일부 항목에서 유의미하게 나타남을 보여준다. 특히, 10대는 도서관의 개인화된 공간과 문화적 클러스터 기능에 대해 높은 기대를 보였으며, 정주 기반 개선과 관련된 항목에서는 청년층(20대)의 인식이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났다. 이는 연령대별로 차별화된 도서관 서비스와 역할 강화를 위한 전략적 접근이 필요함을 시사한다(〈표 14〉 참조).

〈표 14〉 연령에 따른 지역소멸 대응 기관으로서 도서관 역할 적합도 인식 차이

항목		N	M	SD	F	p	Scheffe
지역 정체성을 담은 지역문화 클러스터 중심 도서관	10대	37	3.76	.83	3.407	.019*	a>b
	20대	29	3.07	.88			
	30대	51	3.47	1.01			
	40대	44	3.45	.70			
지역의 문제해결 공간으로서의 도서관	10대	37	3.46	.90	.685	.563	
	20대	29	3.14	.95			
	30대	51	3.29	1.06			
	40대	44	3.36	.78			
개인 취향까지 만족시키는 공간으로서의 도서관	10대	37	3.92	.80	3.895	.010*	a>c
	20대	29	3.28	.96			
	30대	51	3.31	.97			
	40대	44	3.43	.93			
정보격차 해소를 위한 디지털 공간	10대	37	3.86	1.03	1.034	.379	
	20대	29	3.48	1.06			
	30대	51	3.71	1.03			
	40대	44	3.84	.83			
문화복지 격차 해소를 위한 복합문화공간으로서의 도서관	10대	37	4.22	.75	2.263	.083	
	20대	29	3.62	1.12			
	30대	51	3.94	1.03			
	40대	44	3.89	.81			
정주기반 개선을 위한 사회안전망 도서관	10대	37	3.73	.87	4.965	.003**	a,c,d>b
	20대	29	2.93	1.03			
	30대	51	3.55	.90			
	40대	44	3.57	.76			
도시재생과 지역활성화 매개체로서 도서관	10대	37	3.84	.76	2.851	.039*	-
	20대	29	3.24	1.06			
	30대	51	3.39	.98			
	40대	44	3.55	.76			

* $p < .05$, ** $p < .01$

5.2.5 연령에 따른 지역소멸 대응 기관으로서 도서관 역할 수행에 필요한 외부 지원 인식 차이

연령에 따른 지역소멸 대응 기관으로서 도서관 역할 수행에 필요한 외부 지원 인식을 분석한 결과, 항목별로 다음과 같은 차이가 나타났다.

사회문제 해결을 위한 법률 및 정책 지원에 대한 평균 점수는 10대가 3.73 ± 0.87 로 가장 높은 인식을 보였으며, 그다음으로 40대가 3.52 ± 0.73 로 나타났다. 반면, 20대와 30대의 점수는 각각 3.21 ± 1.05 , 3.41 ± 1.10 으로 상대적으로 낮았다. 차이분석에서는 $F = 1.772$, $p = .155$ 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중앙정

부의 예산 지원 항목에서는 10대가 4.19±0.91로 가장 긍정적인 인식을 보였으며, 20대가 3.45±0.99로 가장 부정적인 점수를 나타냈다. 차이분석 결과 $F = 3.507, p = .017$ 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확인되었으며, Scheffe 사후 검정 결과 10대와 20대 간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 지자체의 적극적 예산 지원 항목에서는 10대가 4.27±0.80로 가장 높은 점수를 보였고, 40대가 4.11±0.65로 그다음으로 높았다. 반면, 20대가 3.45±0.95로 가장 낮은 점수를 보였다. 차이분석 결과 $F = 6.148, p = .001$ 로 유의미한 차이가 확인되었으며, Scheffe 사후 검정에서 10대 및 40대와 20대 간의 인식 차이가 유의하게 나타났다. 지역 특성을 반영한 문화기관으로서 도서관

확충 항목에서는 10대가 4.22±0.58로 가장 긍정적인 인식을 보였으며, 40대가 3.93±0.79로 뒤를 이었다. 반면, 20대가 3.52±1.02로 가장 낮은 점수를 기록하였다. 차이분석 결과 $F = 3.762, p = .012$ 로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났으며, Scheffe 사후 검정에서 10대와 20대 간의 차이가 확인되었다. 중앙 및 지방자치단체 간 협력 강화 항목에서는 20대가 3.45±1.02로 가장 낮은 점수를 보였고, 40대가 3.80±0.67로 가장 높은 점수를 기록하였다. 그러나 차이분석 결과 $F = 1.893, p = .133$ 으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는 나타나지 않았다. 이 결과는 연령대별로 도서관 역할 수행에 필요한 외부 지원에 대한 인식에서 일부 항목

<표 15> 연령에 따른 지역소멸 대응 기관으로서 도서관 역할 수행에 필요한 외부 지원 인식 차이

항목		N	M	SD	F	p	Scheffe
사회문제 해결을 위한 법률 및 정책지원	10대	37	3.73	.87	1.772	.155	
	20대	29	3.21	1.05			
	30대	51	3.41	1.10			
	40대	44	3.52	.73			
중앙정부의 예산지원	10대	37	4.19	.91	3.507	.017*	a>b
	20대	29	3.45	.99			
	30대	51	3.71	1.10			
	40대	44	3.89	.84			
지자체의 적극적 예산지원	10대	37	4.27	.80	6.148	.001**	a,d>b
	20대	29	3.45	.95			
	30대	51	3.76	1.01			
	40대	44	4.11	.65			
지역 특성을 반영한 문화기관으로서 도서관 확충	10대	37	4.22	.58	3.762	.012*	a>b
	20대	29	3.52	1.02			
	30대	51	3.90	.92			
	40대	44	3.93	.79			
중앙 및 지방자치단체 간 협력강화	10대	37	3.95	.78	1.893	.133	
	20대	29	3.45	1.02			
	30대	51	3.69	.99			
	40대	44	3.80	.67			

* $p < .05$, ** $p < .01$

에서 유의미한 차이가 있음을 보여준다. 특히, 10대는 중앙정부 및 지자체의 예산 지원과 문화기관으로서의 도서관 확충에 대해 가장 긍정적인 인식을 보였으며, 20대는 상대적으로 낮은 인식을 나타냈다. 이는 정책 설계와 도서관 프로그램 개발 시 연령별 인식 차이를 고려한 접근이 필요함을 시사한다.

5.2.6 연령에 따른 지역소멸 대응 기관으로서 도서관 제공 서비스 인식 차이

연령에 따른 지역소멸 대응 기관으로서 도서관 제공 서비스에 대한 인식 차이를 분석한 결과는 <표 15>에 제시되어 있다. 모든 항목에서 10대가 다른 연령대에 비해 가장 긍정적인 인식을 보였다. 반면, 20대는 지역의 경제적 활력

<표 16> 연령에 따른 지역소멸 대응 기관으로서 도서관 제공 서비스 인식 차이

항목		N	M	SD	F	p	Scheffe
지역의 경제적 활력을 제공할 수 있는 다양한 서비스 개발·제공	10대	37	4.03	.73	2.549	.058	
	20대	29	3.45	.78			
	30대	51	3.76	1.01			
	40대	44	3.84	.81			
불평등 해소를 위한 서비스 개발·제공	10대	37	4.14	.75	1.864	.138	
	20대	29	3.79	.90			
	30대	51	3.69	.99			
	40대	44	3.82	.90			
고령자 대응, 복지향상을 위한 세분화 된 문화 프로그램 기획·제공	10대	37	4.05	.81	.989	.399	
	20대	29	3.76	.64			
	30대	51	3.92	.80			
	40대	44	4.02	.76			
인구유치 측면의 외부인 유입을 위한 세분화된 문화프로그램 기획·제공	10대	37	3.73	1.04	.044	.988	
	20대	29	3.72	.80			
	30대	51	3.67	.93			
	40대	44	3.68	.96			
지역이 정체성을 담는 차별화된 특화 서비스	10대	37	4.08	.80	1.259	.290	
	20대	29	3.72	.80			
	30대	51	3.80	1.02			
	40대	44	3.95	.68			
문화복지 격차 해소를 위한 다양한 고품질의 문화인프라 확충서비스	10대	37	4.22	.63	1.830	.144	
	20대	29	3.79	.77			
	30대	51	3.88	.97			
	40대	44	4.00	.75			
지역문제 해결의 공간으로서, 지역주민 및 활동가들의 소통·참여·협력 촉진 프로그램	10대	37	4.14	.67	1.829	.144	
	20대	29	3.69	.76			
	30대	51	3.92	.96			
	40대	44	3.84	.71			

* $p < .05$, ** $p < .01$

을 제공할 수 있는 다양한 서비스 개발 및 제공, 고령자 대응과 복지 향상을 위한 세분화된 문화 프로그램 기획 및 제공, 지역의 정체성을 담은 차별화된 특화 서비스, 지역 문제 해결의 공간으로서 지역 주민 및 활동가들의 소통·참여·협력 촉진 프로그램 항목에서 가장 부정적인 인식을 나타냈다. 30대의 경우 불평등 해소를 위한 서비스 개발 및 제공, 인구 유치 측면에서 외부인 유입을 위한 세분화된 문화 프로그램 기획 및 제공 항목에서 가장 부정적인 인식을 보였다.

차이분석 결과, 모든 항목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는 확인되지 않았다. 이는 연령대별 도서관 서비스에 대한 인식 차이가 명확하지 않음을 보여주며, 특정 연령대의 서비스 인식을 개선하기 위한 추가적인 연구와 접근이 필요함을 시사한다.

5.3 성별에 따른 지역소멸 대응 기관으로서의 도서관 역할 인식 차이

5.3.1 성별에 따른 지역소멸 대상 위치 인식 차이

성별에 따른 지역소멸 대상 위치 인식 차이를 분석한 결과, “예”라고 응답한 비율은 남성 40.9%, 여성 59.1%로 나타났으며, “아니오”라고 응답한 비율은 남성 37.4%, 여성 62.6%로

분석되었다. 전체적으로 여성 응답자가 남성보다 지역소멸 대상 위치에 대한 인식 비율이 다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표 17〉 참조).

5.3.2 성별에 따른 지역소멸에 대한 인식 차이
성별에 따른 지역소멸에 관한 인식 차이를 분석한 결과, 모든 항목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는 나타나지 않았다.

지역소멸 도서관 영향에 대한 인식은 남성 3.79, 여성 3.73로 유사하였으며($t = 0.324, p = .747$), 청년 인구 수도권 쏠림 현상 해결을 위한 도서관 서비스 개선에 대한 인식은 남성 2.49, 여성 2.31로 큰 차이가 없었다($t = 1.017, p = .311$). 지역소멸 해법 도서관 건립 및 운영에 대한 인식은 남성 2.64, 여성 2.71로 유사하게 나타났으며($t = -0.435, p = .664$), 도서관이 지역 지속 가능성을 위한 중심문화기관으로서의 역할에 대한 인식은 남성 3.15, 여성 3.33로 차이가 없었다($t = -1.135, p = .258$). 이 결과는 성별에 따른 지역소멸 대응 도서관 역할에 대한 인식이 전반적으로 유사함을 보여준다(〈표 18〉 참조).

5.3.3 성별에 따른 도서관의 지역활성화 및 지역소멸 방지 기여 인식 차이

성별에 따른 도서관의 지역 활성화 및 지역

〈표 17〉 성별에 따른 지역소멸 대상 위치 인식 차이

항목		지역소멸대상위치		총계
		예	아니오	
연령	남성	9(40.9%)	52(37.4%)	61(37.9%)
	여성	13(59.1%)	87(62.6%)	100(62.1%)
총계		22(100%)	139(100%)	161(100%)

* $p < .05$, ** $p < .01$

〈표 18〉 성별에 따른 지역소멸에 관한 인식 차이

항목		N	M	SD	t	p
지역소멸 도서관 영향	남성	61	3.79	1.11	.324	.747
	여성	100	3.73	1.06		
청년인구 수도권 쏠림 현상 도서관 서비스개선으로 해결	남성	61	2.49	1.15	1.017	.311
	여성	100	2.31	1.07		
지역소멸 해법 도서관 건립 및 운영	남성	61	2.64	.97	-.435	.664
	여성	100	2.71	1.02		
도서관이 지역의 지속가능성을 위한 중심문화기관으로서의 역할	남성	61	3.15	.93	-1.135	.258
	여성	100	3.33	1.03		

* $p < .05$, ** $p < .01$

소멸 방지 기여 인식 차이를 분석한 결과, 모든 항목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는 나타나지 않았다.

지역사회 경제 활성화에 대한 인식은 남성 2.89, 여성 2.87로 매우 유사했으며($t = 0.096$, $p = .924$), 도시재생에 대한 인식은 남성 3.26, 여성 3.28로 큰 차이가 없었다($t = -0.115$, $p = .908$). 문화 격차 해소에 대한 인식은 남성 3.67, 여성 3.69로 거의 동일하였으며($t = 0.094$, $p = .925$), 경제적 및 문화 파급효과를 위한 인구 유입에 대한 인식은 남성 2.82, 여성 2.77로 유사하게 나타났다($t = 0.304$, $p = .761$). 이 결

과는 성별에 따라 도서관의 지역 활성화와 지역소멸 방지 기여에 대한 인식 차이가 크지 않으며, 남성과 여성이 전반적으로 유사한 수준의 인식을 보이고 있음을 시사한다(〈표 19〉 참조).

5.3.4 성별에 따른 지역소멸 대응 기관으로서 도서관 역할 적합도 인식 차이

성별에 따른 지역소멸 대응 기관으로서 도서관 역할 적합도에 대한 인식 차이를 분석한 결과, 모든 항목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는 나타나지 않았다.

〈표 19〉 성별에 따른 도서관의 지역활성화 및 지역소멸 방지 기여 인식 차이

항목		N	M	SD	t	p
지역사회 경제 활성화	남성	61	2.89	.97	.096	.924
	여성	100	2.87	.99		
도시재생	남성	61	3.26	1.01	-.115	.908
	여성	100	3.28	.90		
문화격차해소	남성	61	3.70	1.02	.094	.925
	여성	100	3.69	.95		
경제적 및 문화파급 효과를 위한 인구유입	남성	61	2.82	1.04	.304	.761
	여성	100	2.77	.98		

* $p < .05$, ** $p < .01$

〈표 20〉 성별에 따른 지역소멸 대응 기관으로서 도서관 역할 적합도 인식 차이

항목		N	M	SD	t	p
지역 정체성을 담은 지역문화 클러스터 중심 도서관	남성	61	3.56	.90	1.092	.276
	여성	100	3.40	.88		
지역의 문제해결 공간으로서의 도서관	남성	61	3.28	.93	-0.469	.639
	여성	100	3.35	.94		
개인 취향까지 만족시키는 공간으로서의 도서관	남성	61	3.46	.99	-0.202	.840
	여성	100	3.49	.92		
정보격차 해소를 위한 디지털 공간	남성	61	3.56	1.07	-1.843	.067
	여성	100	3.85	.91		
문화복지 격차 해소를 위한 복합문화공간으로서의 도서관	남성	61	3.85	.98	-0.832	.407
	여성	100	3.98	.92		
정주기반 개선을 위한 사회안전망 도서관	남성	61	3.38	1.00	-1.164	.246
	여성	100	3.55	.86		
도시재생과 지역활성화 매개체로서 도서관	남성	61	3.49	.96	-0.190	.849
	여성	100	3.52	.88		

* $p < .05$, ** $p < .01$

지역 정체성을 담은 지역문화 클러스터 중심 도서관에 대한 인식은 남성 3.56, 여성 3.40으로 유사했으며($t = 1.092, p = .276$), 지역의 문제 해결 공간으로서의 도서관에 대한 인식은 남성 3.28, 여성 3.35로 큰 차이가 없었다($t = -0.469, p = .639$).

개인 취향까지 만족시키는 공간으로서의 도서관에 대한 인식은 남성 3.46, 여성 3.49로 거의 동일했으며($t = -0.202, p = .840$), 정보격차 해소를 위한 디지털 공간에 대한 인식은 남성 3.50, 여성 3.72로 유사했으나, 유의미한 차이는 나타나지 않았다($t = -1.843, p = .067$). 문화복지 격차 해소를 위한 복합문화공간으로서의 도서관에 대한 인식은 남성 3.85, 여성 3.98로 나타났다($t = -0.832, p = .407$), 정주기반 개선을 위한 사회안전망 도서관에 대한 인식은 남성 3.55, 여성 3.62로 유사했다($t = -1.164, p = .246$). 도시재생과 지역활성화 매개체로서의 도서관에 대한 인식은 남성 3.44, 여성 3.52로 차

이가 거의 없었다($t = -0.190, p = .849$).

이 결과는 성별에 따른 도서관 역할 적합도 인식이 전반적으로 유사하며, 남성과 여성이 도서관의 다양한 역할에 대해 거의 동일한 수준의 인식을 가지고 있음을 시사한다.

5.3.5 성별에 따른 지역소멸 대응 기관으로서 도서관 역할 수행에 필요한 외부 지원 인식 차이

성별에 따른 지역소멸 대응 기관으로서 도서관 역할 수행에 필요한 외부 지원 인식 차이를 분석한 결과, 대부분의 항목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는 나타나지 않았다. 사회문제 해결을 위한 법률 및 정책 지원에 대한 인식은 남성 3.43, 여성 3.51로 유사했으며($t = -0.538, p = .591$), 중앙정부의 예산 지원에 대한 인식도 남성 3.69, 여성 3.90으로 큰 차이가 없었다($t = -1.314, p = .191$). 지자체의 적극적 예산 지원에 대한 인식은 남성 3.74, 여성 4.03으

〈표 21〉 성별에 따른 지역소멸 대응 기관으로서 도서관 역할 수행에 필요한 외부 지원 인식 차이

항목		N	M	SD	t	p
사회문제 해결을 위한 법률 및 정책지원	남성	61	3.43	1.07	-538	.591
	여성	100	3.51	.88		
중앙정부의 예산지원	남성	61	3.69	1.04	-1.314	.191
	여성	100	3.90	.96		
지자체의 적극적 예산지원	남성	61	3.74	1.00	-2.000	.047*
	여성	100	4.03	.83		
지역 특성을 반영한 문화기관으로서 도서관 확충	남성	61	3.87	.92	-507	.613
	여성	100	3.94	.83		
중앙 및 지방자치단체 간 협력강화	남성	61	3.67	.94	-684	.495
	여성	100	3.77	.84		

* $p < .05$, ** $p < .01$

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확인되었다($t = -2.000, p = .047$). 지역 특성을 반영한 문화기관으로서 도서관 확충에 대한 인식은 남성 3.94, 여성 3.94로 동일하였으며($t = -0.507, p = .613$), 중앙 및 지방자치단체 간 협력 강화에 대한 인식은 남성 3.67, 여성 3.77로 유사했다($t = -0.684, p = .495$). 이 결과는 대부분의 항목에서 성별에 따른 인식 차이가 크지 않음을 보여주지만, 지자체의 적극적 예산 지원에 대해 여성 응답자가 남성보다 긍정적으로 인식하고 있음을 시사한다.

5.3.6 성별에 따른 지역소멸 대응 기관으로서 도서관 제공 서비스 인식 차이

성별에 따른 지역소멸 대응 기관으로서 도서관 제공 서비스에 대한 인식 차이를 분석한 결과, 모든 항목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는 나타나지 않았다.

지역의 경제적 활력을 제공할 수 있는 다양한 서비스 개발·제공에 대한 인식은 남성 3.84, 여성 3.76으로 유사했으며($t = 0.538, p = .592$), 불평등 해소를 위한 서비스 개발·제공에 대한

인식도 남성 3.77, 여성 3.89로 큰 차이가 없었다($t = -0.812, p = .418$). 고령자 대응, 복지향상을 위한 세분화된 문화 프로그램 기획·제공에 대한 인식은 남성 3.92, 여성 3.97로 나타났다으며($t = -0.417, p = .677$), 인구 유치 측면에서 외부인 유입을 위한 세분화된 문화 프로그램 기획·제공에 대한 인식도 남성 3.67, 여성 3.71로 유사했다($t = -0.248, p = .804$). 지역의 정체성을 담은 차별화된 특화 서비스에 대한 인식은 남성 3.85, 여성 3.92로 큰 차이가 없었으며($t = -0.489, p = .626$), 문화복지 격차 해소를 위한 다양한 고품질의 문화 인프라 확충 서비스에 대한 인식도 남성 3.93, 여성 4.00으로 유사했다($t = -0.495, p = .621$). 지역 문제 해결의 공간으로서 지역주민 및 활동가들의 소통·참여·협력 촉진 프로그램에 대한 인식은 남성 3.84, 여성 3.95로 유사하게 나타났다($t = -0.871, p = .385$). 이 결과는 성별에 따른 도서관 서비스 제공에 대한 인식이 전반적으로 유사하며, 남성과 여성이 도서관 서비스의 다양한 역할에 대해 비슷한 수준으로 인식하고 있음을 시사한다(〈표 22〉 참조).

〈표 22〉 성별에 따른 지역소멸 대응 기관으로서 도서관 제공 서비스 인식 차이

항목		N	M	SD	t	p
지역의 경제적 활력을 제공할 수 있는 다양한 서비스 개발·제공	남성	61	3.84	.93	.538	.592
	여성	100	3.76	.83		
불평등 해소를 위한 서비스 개발·제공	남성	61	3.77	1.02	-.812	.418
	여성	100	3.89	.83		
고령자 대응, 복지향상을 위한 세분화 된 문화 프로그램 기획·제공	남성	61	3.92	.84	-.417	.677
	여성	100	3.97	.72		
인구유치 측면의 외부인 유입을 위한 세분화된 문화프로그램 기획·제공	남성	61	3.67	.96	-.248	.804
	여성	100	3.71	.92		
지역이 정체성을 담는 차별화된 특화 서비스	남성	61	3.85	.96	-.489	.626
	여성	100	3.92	.77		
문화복지 격차 해소를 위한 다양한 고품질의 문화인프라 확충서비스	남성	61	3.93	.96	-.495	.621
	여성	100	4.00	.71		
지역문제 해결의 공간으로서, 지역주민 및 활동가들의 소통·참여·협력 촉진 프로그램	남성	61	3.84	.93	-.871	.385
	여성	100	3.95	.72		

* $p < .05$, ** $p < .01$

5.4 도서관 이용횟수에 따른 지역소멸 대응 기관으로서의 도서관 역할 인식 차이

5.4.1 도서관 이용횟수에 따른 지역소멸 대상 위치 인식 차이

본 연구에 참여한 대상자들의 도서관 이용 횟수에 따른 지역소멸 대상 위치 거주 여부에 대한 설문 결과, “예”라고 응답한 비율은 “거의 이용하지 않음”을 제외하고 유사한 수준으로

나타났다($\chi^2 = 0.415$, $df = 4$, $p = 0.981$). 이는 도서관 이용 빈도와 지역소멸 대상 위치에 대한 인식 간에 유의미한 차이가 없음을 보여준다(〈표 23〉 참조).

5.4.2 도서관 이용횟수에 따른 지역소멸에 대한 인식 차이

도서관 이용 횟수에 따른 지역소멸에 대한 인식 차이를 분석한 결과, 반년간 1~3회 이용 그

〈표 23〉 도서관 이용횟수에 따른 지역소멸 대상 위치 인식 차이

항목	지역소멸 대상 위치		총계
	예	아니오	
주 1~3회	3(13.6%)	18(12.9%)	21(13.0%)
월 1~3회	4(18.2%)	22(15.8%)	26(16.1%)
반년간 1~3회	4(18.2%)	20(14.4%)	24(14.9%)
연간 1~3회	4(18.2%)	29(20.9%)	33(20.5%)
거의 이용하지 않음	7(31.8%)	50(36.0%)	57(35.4%)
총계	22(100.0%)	139(100.0%)	161(100.0%)

* $p < .05$, ** $p < .01$

룹이 평균 4.13±1.15로 가장 높은 인식을 나타냈으며, 주 1~3회 이용 그룹은 평균 4.10±0.70으로 뒤를 이었다. 그러나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는 확인되지 않았다($F = 1.825, p = .122$). 청년인구의 수도권 쏠림 현상을 도서관 서비스 개선으로 해결할 수 있다는 인식에서는 도서관 이용 빈도가 높을수록 긍정적인 경향이 확인되었으나,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는 나타나지 않았다($F = 1.021, p = .398$). 지역소멸에 대응하는 해법으로 도서관 건립 및 운영이 적합하다는 인식에서는 주 1~3회 이용 집단이 평균 3.02±1.02로 가장 긍정적인 인식을 보였으며, 월 1~3회 이용 집단은 평균 2.58±1.17로 가

장 부정적인 인식을 보였다. 그러나 이 항목에서도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는 나타나지 않았다($F = 0.328, p = .449$). 지역소멸 대응 기관으로서 도서관이 지역의 지속가능성을 위한 중심문화기관으로서의 역할을 충분히 수행해야 한다는 인식에서는 도서관 방문 횟수가 높을수록 긍정적인 경향이 확인되었으며,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도출되었다($F = 2.803, p < .05$). 그러나 사후 분석에서는 집단 간 유의미한 차이는 발견되지 않았다.

이 결과는 도서관 이용 빈도가 지역소멸 대응에 대한 인식 형성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을 시사하며, 특히 도서관의 중심문화기관으로서

〈표 24〉 도서관 이용횟수에 따른 지역소멸에 관한 인식 차이

항목		N	M	SD	F	p	Scheffe
지역소멸 도서관 영향	주 1~3회	21	4.10	.70	1.852	.122	NS
	월 1~3회	26	3.58	1.10			
	반년간 1~3회	24	4.13	1.15			
	연간 1~3회	33	3.55	.97			
	거의 이용하지 않음	57	3.67	1.17			
청년인구 수도권 쏠림 현상 도서관 서비스개선으로 해결	주 1~3회	21	2.71	1.19	1.021	.398	
	월 1~3회	26	2.50	1.21			
	반년간 1~3회	24	2.25	1.26			
	연간 1~3회	33	2.45	1.00			
	거의 이용하지 않음	57	2.21	1.00			
지역소멸 해법 도서관 건립 및 운영	주 1~3회	21	3.05	1.02	.928	.449	
	월 1~3회	26	2.58	1.17			
	반년간 1~3회	24	2.75	1.03			
	연간 1~3회	33	2.64	.90			
	거의 이용하지 않음	57	2.60	.94			
도서관이 지역의 지속가능성을 위한 중심문화기관으로서의 역할	주 1~3회	21	3.71	.90	2.803	.028*	-
	월 1~3회	26	3.46	.95			
	반년간 1~3회	24	3.46	.93			
	연간 1~3회	33	3.06	.93			
	거의 이용하지 않음	57	3.04	1.03			

* $p < .05$, ** $p < .01$ NS: Not Significant

의 역할에 대한 긍정적 인식은 이용 빈도가 높은 집단에서 더 두드러짐을 보여준다.

5.4.3 도서관 이용횟수에 따른 도서관의 지역 활성화 및 지역소멸 방지 기여 인식 차이
본 연구에 참여한 대상자들의 도서관 이용 횟수에 따른 도서관의 지역 활성화 및 지역소멸 방지 기여에 대한 인식 차이를 분석한 결과는 <표 25>에 제시되어 있다.

지역사회 경제 활성화에 대한 분석에서는 주 1~3회 이용 집단이 평균 3.10±1.14로 가장 긍정적인 인식을 보였으며, 반대로 거의 이용하지 않는 집단이 평균 2.67±0.95로 가장 낮은 인식

을 나타냈다. 그러나 차이분석 결과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는 확인되지 않았다($F = 1.225, p = .303$). 도시재생에 대한 인식에서는 주 1~3회 이용 집단이 평균 3.71±0.96으로 가장 긍정적인 인식을 보였으며, 월 1~3회 이용 집단이 그 뒤를 이었다. 차이분석에서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수치가 확인되었으나($F = 2.726, p = .05$), Scheffe 사후분석에서는 집단 간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문화격차 해소에 대한 인식 분석 결과, 주 1~3회 이용 집단이 평균 4.14±0.79로 가장 높은 인식을 보였으며, 도서관 이용 빈도가 높을 수록 문화격차 해소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이

<표 25> 도서관 이용횟수에 따른 도서관의 지역활성화 및 지역소멸 방지 기여 인식차이

항목		N	M	SD	F	p	Scheffe
지역사회 경제 활성화	주 1~3회	21	3.10	1.14	1.225	.303	
	월 1~3회	26	2.88	1.03			
	반년간 1~3회	24	3.08	1.02			
	연간 1~3회	33	2.94	.83			
	거의 이용하지 않음	57	2.67	.95			
도시재생	주 1~3회	21	3.71	.96	2.726	.031*	-
	월 1~3회	26	3.46	.76			
	반년간 1~3회	24	3.17	.92			
	연간 1~3회	33	3.36	.78			
	거의 이용하지 않음	57	3.02	1.04			
문화격차 해소	주 1~3회	21	4.14	.79	3.247	.014*	-
	월 1~3회	26	4.04	.87			
	반년간 1~3회	24	3.67	1.17			
	연간 1~3회	33	3.64	.78			
	거의 이용하지 않음	57	3.42	1.02			
경제적 및 문화과급 효과를 위한 인구유입	주 1~3회	21	3.00	1.00	.431	.786	
	월 1~3회	26	2.69	1.23			
	반년간 1~3회	24	2.75	1.03			
	연간 1~3회	33	2.88	.93			
	거의 이용하지 않음	57	2.72	.94			

* $p < .05$, ** $p < .01$

증가하는 경향이 확인되었다. 분산분석에서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났으나($F = 3.247, p < .05$), 사후분석에서는 집단 간 유의미한 차이를 확인하지 못하였다. 경제적 및 문화 과급 효과를 위한 인구유입에 대한 인식은 주 1~3회 이용 집단이 평균 3.00 ± 1.00 으로 가장 긍정적이었으며, 월 1~3회 이용 집단이 평균 2.69 ± 1.23 으로 가장 부정적인 인식을 나타냈다. 이 항목에서도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는 나타나지 않았다($F = 0.431, p = .786$).

이 결과는 도서관 이용 빈도가 일부 항목에서 긍정적인 인식 형성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을 시사하며, 특히 도서관 이용 빈도가 높은 집단에서 문화격차 해소와 지역 활성화에 대한 긍정적 인식이 상대적으로 더 강하게 나타나는 경향을 보여준다.

5.4.4 도서관 이용횟수에 따른 지역소멸 대응 기관으로서 도서관 역할 적합도 인식 차이

도서관 이용 횟수에 따른 지역소멸 대응 기관으로서 도서관 역할 적합도 인식 차이를 분석한 결과는 <표 25>에 제시되어 있다.

지역 정체성을 담는 지역문화 클러스터 중심 도서관에 대한 분석에서 주 1~3회 이용 집단이 평균 3.86 ± 0.65 로 가장 높은 인식을 나타냈으나, 차이분석에서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F = 1.505, p = .203$).

지역의 문제 해결 공간으로서의 도서관에 대한 분석에서는 도서관 이용 빈도가 높을수록 긍정적인 인식이 증가하는 경향이 나타났으며,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확인되었다($F = 2.488, p < .05$).

개인 취향까지 만족시키는 공간으로서의 도서관에 대한 분석에서는 반년간 1~3회 이용 집단이 평균 3.71 ± 1.00 으로 가장 긍정적인 인식을 보였으며, 거의 이용하지 않는 집단은 평균 3.32 ± 1.04 로 가장 낮은 인식을 나타냈다. 그러나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는 도출되지 않았다($F = 1.426, p = .228$).

정보격차 해소를 위한 디지털 공간에 대한 인식에서는 월 1~3회 이용 집단이 평균 4.15 ± 0.83 으로 가장 높은 인식을 나타냈으며,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확인되었다($F = 2.950, p < .05$). 문화복지 격차 해소를 위한 복합문화 공간으로서의 도서관에 대한 분석에서는 도서관 이용 빈도가 높을수록 긍정적인 인식이 증가하는 경향이 확인되었으며,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났다($F = 4.923, p < .01$). 사후분석에서는 주 1~3회 이용 집단과 거의 이용하지 않는 집단 간 유의미한 차이가 확인되었다. 정주 기반 개선을 위한 사회안전망 도서관에 대한 분석에서는 월 1~3회 이용 집단이 평균 3.92 ± 0.93 으로 가장 높은 인식을 나타냈다. 차이분석에서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도출되었으며($F = 3.243, p < .05$), 사후분석에서는 월 1~3회 이용 집단과 연간 1~3회 이용 집단 간 유의미한 차이가 확인되었다. 도시재생과 지역 활성화 매개체로서 도서관에 대한 분석에서는 월 1~3회 이용 집단이 평균 3.81 ± 1.06 으로 가장 긍정적인 인식을 보였으나, 차이분석에서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는 확인되지 않았다($F = 1.884, p = .116$). 이 결과는 도서관 이용 빈도가 특정 역할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을 형성하는 데 영향을 미칠 가능성을 시사하며, 특히 정보격차 해소, 문화복지 격차 해소,

〈표 26〉 도서관 이용횟수에 따른 지역소멸 대응 기관으로서 도서관 역할 적합도 인식 차이

항목		N	M	SD	F	p	Scheffe
지역 정체성을 담은 지역문화 클러스터 중심 도서관	주 1~3회	21	3.86	.65	1.505	.203	
	월 1~3회	26	3.46	.90			
	반년간 1~3회	24	3.54	.98			
	연간 1~3회	33	3.33	.78			
	거의 이용하지 않음	57	3.35	.95			
지역의 문제해결 공간으로서의 도서관	주 1~3회	21	3.76	.94	2.488	.046*	-
	월 1~3회	26	3.58	.86			
	반년간 1~3회	24	3.25	.85			
	연간 1~3회	33	3.24	.83			
	거의 이용하지 않음	57	3.12	1.00			
개인 취향까지 만족시키는 공간으로서의 도서관	주 1~3회	21	3.67	.86	1.426	.228	
	월 1~3회	26	3.65	.94			
	반년간 1~3회	24	3.71	1.00			
	연간 1~3회	33	3.33	.74			
	거의 이용하지 않음	57	3.32	1.04			
정보격차 해소를 위한 디지털 공간	주 1~3회	21	4.05	.97	2.950	.022*	-
	월 1~3회	26	4.15	.83			
	반년간 1~3회	24	3.79	.98			
	연간 1~3회	33	3.64	.82			
	거의 이용하지 않음	57	3.47	1.07			
문화복지 격차 해소를 위한 복합문화공간으로서의 도서관	주 1~3회	21	4.48	.51	4.923	.001**	a>e
	월 1~3회	26	4.31	.79			
	반년간 1~3회	24	4.00	1.02			
	연간 1~3회	33	3.73	.67			
	거의 이용하지 않음	57	3.65	1.09			
정주기반 개선을 위한 사회안전망 도서관	주 1~3회	21	3.76	.83	3.243	.014*	b>d
	월 1~3회	26	3.92	.93			
	반년간 1~3회	24	3.42	.88			
	연간 1~3회	33	3.18	.81			
	거의 이용하지 않음	57	3.39	.94			
도시재생과 지역활성화 매개체로서 도서관	주 1~3회	21	3.71	.78	1.884	.116	
	월 1~3회	26	3.81	1.06			
	반년간 1~3회	24	3.63	.88			
	연간 1~3회	33	3.39	.70			
	거의 이용하지 않음	57	3.32	.97			

* $p < .05$, ** $p < .01$

그리고 사회안전망 도서관과 관련된 항목에서 드러졌다. 이용 빈도가 높은 집단의 긍정적인 인식이 두

5.4.5 도서관 이용횟수에 따른 지역소멸 대응 기관으로서 도서관 역할 수행에 필요한 외부 지원 인식 차이

도서관 이용 횟수에 따른 외부 지원 인식 차이를 분석한 결과, 사회문제 해결을 위한 법률 및 정책 지원에서는 월 1~3회 이용 집단이 평균 3.85±0.83으로 가장 긍정적인 인식을 보였으나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는 나타나지 않았다(F = 2.079, p = .086). 중앙정부 예산 지

원에 대해서는 도서관 이용 빈도가 낮을수록 부정적인 인식을 보였으나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았다(F = 1.925, p = .109). 지자체의 적극적 예산 지원에 대한 인식에서는 도서관 이용 빈도가 높을수록 긍정적인 인식이 증가했으며,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확인되었다(F = 2.652, p < .015). 그러나 사후분석에서는 집단 간 유의미한 차이를 확인하지 못하였다. 지역 특성을 반영한 문화기관으로서 도서

<표 27> 도서관 이용횟수에 따른 지역소멸 대응기관으로서 도서관 역할 수행에 필요한 외부 지원 인식 차이

항목		N	M	SD	F	p	Scheffe
사회문제 해결을 위한 법률 및 정책지원	주 1~3회	21	3.57	.93	2.079	.086	
	월 1~3회	26	3.85	.83			
	반년간 1~3회	24	3.63	1.10			
	연간 1~3회	33	3.42	.71			
	거의 이용하지 않음	57	3.25	1.04			
중앙정부의 예산지원	주 1~3회	21	4.14	.91	1.925	.109	
	월 1~3회	26	4.12	.95			
	반년간 1~3회	24	3.75	1.19			
	연간 1~3회	33	3.82	.64			
	거의 이용하지 않음	57	3.60	1.08			
지자체의 적극적 예산지원	주 1~3회	21	4.29	.85	2.652	.035*	-
	월 1~3회	26	4.19	.80			
	반년간 1~3회	24	4.00	.98			
	연간 1~3회	33	3.82	.58			
	거의 이용하지 않음	57	3.68	1.04			
지역 특성을 반영한 문화기관으로서 도서관 확충	주 1~3회	21	4.10	.62	.919	.454	
	월 1~3회	26	4.08	.84			
	반년간 1~3회	24	4.00	1.02			
	연간 1~3회	33	3.79	.70			
	거의 이용하지 않음	57	3.81	.95			
중앙 및 지방자치단체 간 협력강화	주 1~3회	21	3.81	.93	.685	.604	
	월 1~3회	26	3.85	.83			
	반년간 1~3회	24	3.79	.98			
	연간 1~3회	33	3.82	.53			
	거의 이용하지 않음	57	3.58	1.00			

관 확충에 대한 인식은 도서관 이용 빈도가 높을수록 긍정적인 경향을 보였으나,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았다($F = 0.919, p = .454$). 중앙 및 지방자치단체 간 협력 강화에 대한 인식은 거의 이용하지 않는 집단이 가장 부정적인 인식을 보였으나,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는 나타나지 않았다($F = 0.685, p = .604$).

이 결과는 도서관 이용 빈도가 외부 지원(지자체의 적극적 예산지원)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을 시사한다.

5.4.6 도서관 이용 횟수에 따른 지역소멸 대응 기관으로서 도서관 제공 서비스 인식 차이

도서관 이용 횟수에 따른 지역소멸 대응 기관으로서 도서관 제공 서비스 인식 차이를 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지역의 경제적 활력을 제공할 수 있는 다양한 서비스 개발·제공에서는 연간 1~3회 이용자 집단이 평균 3.76 ± 0.66 으로 가장 긍정적인 인식을 보였으나,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는 나타나지 않았다($F = 0.476, p = .753$). 불평등 해소를 위한 서비스 개발·제공에서는 반년간 1~3회 이용자 집단이 평균 3.67 ± 1.17 로 가장 부정적인 인식을 보였으며,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는 나타나지 않았다($F = 1.130, p = .345$).

고령자 대응과 복지 향상을 위한 세분화된 문화 프로그램 기획·제공에서는 주 1~3회 이용자 집단이 가장 긍정적인 인식을 보였으며, 다음으로 월 1~3회 이용자 집단이 높은 인식을 나타냈다($F = 0.612, p = .654$).

인구 유치 측면에서 외부인 유입을 위한 세분

화된 문화 프로그램 기획·제공에서는 월 1~3회 이용자 집단이 평균 3.50 ± 1.14 로 가장 부정적인 인식을 보였으나,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는 확인되지 않았다($F = 0.881, p = .477$). 지역 정체성을 담는 차별화된 특화 서비스에서는 도서관을 거의 이용하지 않는 집단이 이용 집단보다 부정적인 인식을 보였으나,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았다($F = 0.970, p = .426$).

문화복지 격차 해소를 위한 다양한 고품질의 문화 인프라 확충 서비스에서는 주 1~3회 이용자 집단이 평균 4.33 ± 0.48 로 가장 긍정적인 인식을 보였으며,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는 확인되지 않았다($F = 1.361, p = .250$). 지역 문제 해결의 공간으로서 지역주민 및 활동가들의 소통·참여·협력 촉진 프로그램에서는 주 1~3회 이용자 집단이 가장 긍정적인 인식을 보였으나,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는 나타나지 않았다($F = 1.398, p = .237$).

이 결과는 도서관 이용 횟수가 일부 항목에서 긍정적인 인식 형성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을 시사하며, 특히 주 1~3회 이용 집단에서 전반적으로 높은 인식이 확인되었다. 그러나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부족하여 추가 연구가 필요함을 보여준다.

6. 논의 및 연구질문과의 연계성

본 연구는 부산 지역 내 인구 감소 지역에서 청년층 유출을 방지하고, 경제활동 인구의 지속적 유치를 위한 도서관 서비스의 역할과 방안을 제안하는 데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연구 문제를 중심으로 도출된 결과는 다음과 같다.

〈표 28〉 도서관 이용횟수에 따른 지역소멸 대응 기관으로서 도서관 제공 서비스 인식 차이

항목		N	M	SD	F	p	Scheffe
지역의 경제적 활력을 제공할 수 있는 다양한 서비스 개발·제공	주 1~3회	21	3.67	.97	.476	.753	
	월 1~3회	26	3.73	1.08			
	반년간 1~3회	24	3.71	1.00			
	연간 1~3회	33	3.76	.66			
	거의 이용하지 않음	57	3.91	.79			
불평등 해소를 위한 서비스 개발·제공	주 1~3회	21	4.05	.67	1.130	.345	
	월 1~3회	26	4.08	.80			
	반년간 1~3회	24	3.67	1.17			
	연간 1~3회	33	3.85	.87			
	거의 이용하지 않음	57	3.74	.92			
고령자 대응, 복지향상을 위한 세분화 된 문화 프로그램 기획·제공	주 1~3회	21	4.14	.57	.612	.654	
	월 1~3회	26	4.00	.89			
	반년간 1~3회	24	3.92	.97			
	연간 1~3회	33	3.82	.68			
	거의 이용하지 않음	57	3.95	.72			
인구유치 측면의 외부인 유입을 위한 세분화된 문화프로그램 기획·제공	주 1~3회	21	3.95	.86	.881	.477	
	월 1~3회	26	3.50	1.14			
	반년간 1~3회	24	3.63	.97			
	연간 1~3회	33	3.61	.90			
	거의 이용하지 않음	57	3.77	.87			
지역이 정체성을 담은 차별화된 특화 서비스	주 1~3회	21	4.19	.60	.970	.426	
	월 1~3회	26	3.85	1.05			
	반년간 1~3회	24	4.00	.93			
	연간 1~3회	33	3.82	.68			
	거의 이용하지 않음	57	3.81	.88			
문화복지 격차 해소를 위한 다양한 고품질의 문화인프라 확충서비스	주 1~3회	21	4.33	.48	1.361	.250	
	월 1~3회	26	4.04	.72			
	반년간 1~3회	24	3.88	1.08			
	연간 1~3회	33	3.88	.65			
	거의 이용하지 않음	57	3.91	.89			
지역문제 해결의 공간으로서, 지역주민 및 활동가들의 소통·참여·협력 촉진 프로그램	주 1~3회	21	4.29	.64	1.398	.237	
	월 1~3회	26	3.88	.91			
	반년간 1~3회	24	3.79	1.02			
	연간 1~3회	33	3.85	.62			
	거의 이용하지 않음	57	3.86	.79			

* $p < .05$, ** $p < .01$

• 연구문제 1. 지방소멸의 원인은 무엇이고, 도서관에서의 지방소멸 대응 사례는 있는가?

지방소멸은 산업 구조 변화, 고령화, 생활 인프라 부족, 높은 주거비, 사회적 안전망 약화 등 복합적 요인에 의해 발생한다. 전통 산업 쇠퇴

와 일자리 부족은 경제적 활력을 상실한 지역의 청년층 유출을 가속화시키며, 생활 필수 인프라가 미흡한 지역은 정주 여건이 악화되어 인구 감소가 가중된다. 고령화가 심화된 지역에서는 청년 유입이 줄어 자연 감소로 이어지고, 주거비 부담이 큰 지역에서는 젊은 가구의 이동 경향이 뚜렷하게 나타난다. 이와 함께, 공동체 결속이 약화되고 청년층이 교류하고 정착할 수 있는 환경이 부족한 점도 지역소멸을 심화시키는 주요 요인으로 파악된다. 이에 따라, 주거비 지원, 일자리 확충, 생활 인프라 개선 등의 다각적 접근이 요구된다. 도서관의 대응 사례로는 강원도 인제군의 기적의 도서관과 일본 이시키와 현립도서관이 있으며, 이들은 청년층 유입과 지역사회 활성화에 기여하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 연구문제 2. 연령에 따른 지역소멸 대응 기관으로서의 도서관 역할 인식 차이가 있는가?

연령별 도서관 역할 인식에서는 세대별로 도서관에 대한 기대와 요구가 상이하게 나타났다. 설문조사 결과, 연령대가 높아질수록 도서관의 지역문화 클러스터 및 사회안전망으로서의 역할에 대해 높은 기대를 보였으며, 이를 통해 도서관은 연령별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고 지역사회 내 다양한 연령층의 요구를 반영한 프로그램을 설계할 필요가 있다.

• 연구문제 3. 성별에 따른 지역소멸 대응 기관으로서의 도서관 역할 인식 차이가 있는가?

성별에 따른 인식 차이는 지역 활성화와 도

시재생 역할에서 두드러졌다. 남성은 지역사회 경제 활성화와 문화 격차 해소에 대해 긍정적인 인식을 보인 반면, 여성은 도시재생과 공동체 연계 역할에 대해 더 높은 긍정적 인식을 나타냈다. 이는 도서관이 특정 성별에 치우치지 않고 포괄적이고 전략적인 프로그램을 설계해야 함을 시사한다.

• 연구문제 4. 도서관 이용횟수에 따른 지역소멸 대응 기관으로서의 도서관 역할 인식 차이가 있는가?

도서관 이용 빈도에 따른 분석 결과, 도서관 이용 빈도가 높을수록 도서관의 지역소멸 대응 역할과 외부 지원 필요성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이 두드러졌다. 이는 도서관 이용 경험이 도서관의 지역사회 기여와 역할에 대한 인식 형성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보여준다.

• 연구문제 5. 인구소멸 위기 지역에서의 도서관 기능 확대와 청년층 정착을 위한 방안은 무엇인가?

인구소멸 위기 지역에서의 도서관 기능 확대와 청년층 정착을 위한 방안으로는 네 가지 서비스 영역에서의 기능 강화가 제안되었다. 첫째, 청년층의 경제적 기회를 지원하기 위해 창업 지원 공간과 메이커스페이스를 제공하고, 창업 및 취업 자료와 상담을 통해 경제적 안정을 도모한다. 둘째, 문화·여가 프로그램 운영을 통해 청년층의 문화적 욕구를 충족시키고 지역 생활에 대한 긍정적 경험을 제공한다. 셋째, 교육 및 역량 개발 프로그램으로 최신 기술 교육, 직업 역량 강화, 디지털 리터러시 교육 등을 통해 청년

층의 자기계발과 성장 기회를 제공한다. 넷째, 커뮤니티 연계와 네트워킹 기회를 마련하여 지역사회와 청년층 간 소통과 협력을 강화하고, 지역 내 소속감과 애착을 높인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도서관은 청년층의 경제적, 문화적, 사회적 요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다양한 서비스를 통해 인구 감소 문제 해결과 지역사회의 지속 가능성 확보에 기여할 수 있는 방안을 다음과 같이 제안한다.

첫째, 경제적 기회를 지원하기 위해 도서관은 청년층의 창업과 취업을 촉진하는 다양한 지원을 제공해야 한다. 창업 인큐베이팅 공간을 마련하거나, 관련 자료와 전문가 상담을 통해 청년들의 경제적 기회를 확대할 수 있다. 또한, 메이커스페이스와 같은 디지털 기기 및 소프트웨어를 활용할 수 있는 창작 공간을 제공하여 청년들이 자신의 아이디어를 구현하고 이를 통해 경제적 가능성을 모색하도록 돕는다. 둘째, 문화와 여가의 기회를 확대하는 프로그램을 통해 도서관은 청년층의 문화적 접근성을 향상시키고 지역 생활에 대한 긍정적인 경험을 제공할 수 있다. 영화 상영회, 작가 초청 강연, 음악 및 예술 워크숍, 전시회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도서관을 지역 내 '문화 허브'로 자리매김하게 하고, 이를 통해 청년층의 문화적 만족도를 높인다. 셋째, 교육 및 역량 개발 학습 지원을 통해 도서관은 청년층의 지속적인 자기계발을 위한 기반을 마련할 수 있다. 최신 기술 및 직업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하여 전문성과 경력 개발을 지원하며, 디지털 리터러시, 데이터 분석, 코딩 등 미래 지향적 기술 역량을 강화할 수 있는 학습 기회를 제공한다. 이를 통해 도서관은 청년들이 지

역 내에서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구축하고, 직업 교육 및 학습 자료 지원을 통해 자기계발을 장려한다. 넷째, 커뮤니티 연계 및 네트워킹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도서관은 청년층과 지역사회를 연결하는 플랫폼 역할을 할 수 있다. 지역사회 봉사활동, 청년 네트워크 모임, 다양한 세대 간의 교류 프로그램 등을 통해 청년들이 지역 내에서 소속감을 느끼고 폭넓은 사회적 관계망을 형성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이는 지역사회에 대한 청년층의 긍정적인 인식을 형성하며, 결과적으로 지역 정착을 위한 심리적 기반을 제공한다.

이와 같이 도서관은 경제적 지원, 문화적 접근성 강화, 학습 및 역량 개발, 커뮤니티 연계를 통해 청년층의 다양한 요구를 충족시킴으로써 단순한 정보 제공 기관을 넘어 지역 혁신의 중추적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 이러한 기능은 청년층의 정착을 돕고 지역사회와 상생하며 지역 소멸 문제를 해결하는 데 기여할 수 있다.

7. 결론 및 제언

본 연구는 인구 감소와 지역소멸 문제 속에서 도서관이 지역사회 활성화와 청년층 유출 완화에 기여할 수 있는 방안을 탐구하였다. 급격한 인구 고령화, 저출산, 청년층의 수도권 집중 현상은 지역사회의 경제적, 문화적, 사회적 기반을 약화시키며 지속 가능성을 위협하고 있다. 특히 청년층 유출은 지역 활력을 저하시킬 뿐 아니라 장기적으로 지역의 생존을 위태롭게 한다. 이러한 맥락에서 도서관은 단순한 정보 제공을 넘어 지역사회의 중심 문화기관이

자 청년층 삶의 질을 높이는 공간으로서 발전해야 할 필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연구 결과, 도서관은 청년층 유입과 정착을 지원하는 핵심 거점으로서 기능할 수 있음을 확인하였다. 직업 교육, 창업 기회, 커뮤니티 네트워킹 등 실질적 지원을 통해 청년층은 안정적인 생활 기반을 마련할 수 있으며, 도서관은 이를 제공할 수 있는 주요 플랫폼으로 나타났다. 도서관은 학습과 자기계발의 공간으로서 청년층의 성장과 소속감 형성에 기여하며, 경제적 자립과 지역 정착을 촉진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 특히 창업 및 직업 교육 프로그램, 멘토링과 네트워킹 이벤트, 청년 창업자를 위한 커뮤니티 공간 등은 도서관의 역할 확장에 있어 핵심적인 전략으로 평가된다.

본 연구는 도서관의 역할 확장을 위한 네 가지 전략적 접근을 제안한다. 첫째, 청년층의 구체적인 욕구와 생활양식을 반영한 맞춤형 서비스를 설계해야 한다. 지역 산업 특성과 연계된 직업 교육 프로그램이나 다양한 문화·여가 프로그램을 통해 도서관은 청년층의 실질적 요구를 충족할 수 있어야 한다. 둘째, 경제적 기회를 창출하고 안정적인 일자리를 제공하기 위한 연계 프로그램이 필요하다. 지역 중소기업, 창업 지원 기관 등과의 협력을 통해 창업 지원, 직업 훈련, 고용 정보 제공 등을 운영함으로써 청년층의 경제적 안정성을 도모하고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다. 셋째, 청년층의 사회적

참여와 지역사회와의 유대를 강화하기 위해 커뮤니티 프로그램 운영이 중요하다. 다양한 관심사와 취미를 바탕으로 한 소모임 지원, 지역 문제 해결을 위한 워크숍과 프로젝트 운영을 통해 청년층의 지역사회 참여를 유도하고, 지역사회 문제 해결에 기여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 넷째, 도서관과 지역사회 이해관계자들 간 협력 모델을 구축해야 한다. 지역 공공기관, 기업, 비영리 단체와의 협력을 통해 도서관 서비스의 깊이와 범위를 확대하고, 청년층에게 포괄적 혜택을 제공할 수 있는 다각적 지원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

이러한 전략은 도서관이 지역사회와 협력하여 청년층이 필요로 하는 복지 및 문화적 욕구를 충족시키고, 지역 정착을 유도하며 사회적 참여를 촉진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음을 시사한다. 도서관은 정보와 문화의 공간을 넘어 지역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한 촉진자이자 청년층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복합문화공간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다.

향후 연구에서는 이러한 도서관 서비스의 실질적 효과와 장기적 기여를 실증적으로 분석하고, 지역별 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도서관 모델을 개발하는 작업이 필요하다. 또한, 도서관이 청년층 정착에 미치는 영향을 체계적으로 평가하여 그 역할을 정교하게 설계함으로써, 도서관의 사회적 기여를 극대화하는 방안을 모색해야 할 것이다.

참 고 문 헌

- 김대래 (2019). 부산 인구의 역외전출입 추이와 그 함의(1970-2018). 지방정부연구, 23(1), 1-24.
- 김윤희, 공순구 (2023). 상호협력체계에 따른 국·공립 대학도서관 네트워크 구성에 관한 연구. 한국 실내디자인학회 학술대회논문집, 서울, 200-223. <https://doi.org/10.30693/smj.2024.13.12.20>
- 김지영 (2023). 인공지능 기반 기술에 대한 공공도서관 사서의 사용의도 연구. 한국문헌정보학회지, 57(3), 163-190. <https://doi.org/10.4275/KSLIS.2023.57.3.163>
- 노영희, 강정아 (2024). 지역소멸 대응 기관으로서의 공공도서관 역할 변화에 대한 사서의 인식 조사 연구. 한국비블리아학회지, 35(4), 93-118. <https://doi.org/10.14699/kbiblia.2024.35.4.093>
- 마상열, 강인주, 배광한, 정희수, 남광우, 이우배, 홍순현 (2009). 경남 인구감소도시의 관리방안 연구. 경남연구원.
- 부산광역시 (2021). 부산 인구정책 브리핑. 부산: 부산광역시.
- 오정일, 안기돈 (2007). 우리나라 15개 시도의 일자리 수 변화와 인구이동 간 인과성 검증. 국토연구, 53, 57-76.
- 이왕건 (2005). 도시재생사업의 전개: 도시재생과 도시경제 활성화 방향. 도시문제, 40(439), 12-20.
- 이현국, 강영환 (2019). 어메니티와 청년인구변화: 대전광역시 사례를 중심으로. 한국사회와 행정연구, 30(3), 195-215. <https://doi.org/10.53865/kspa.2019.11.30.3.195>
- 임미리 (2023). 공공도서관 청년 이용자를 위한 독서 모임 활성화 방안 연구. 석사학위논문, 이화여자 대학교.
- 정기성, 홍사흠 (2019). 공간 분석을 통한 지역별 수도권 인구유입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연구: 지리 정보시스템과 지리적가중회귀모형을 이용하여. 국토계획, 54(6), 116-127. <https://doi.org/10.17208/jkpa.2019.11.54.6.116>
- 정윤희 (2019). 책문화생태계관점에서의 출판정책, 도서관정책, 독서정책 비교 연구. 문화콘텐츠연구, 15, 69-104.
- 통계청 (2021). 장래인구추계 2020-2070년. 대전: 통계청.
- 홍기석, 윤태영 (2019). 부산지역 인구이동에 대한 분석: 청년층을 중심으로. 한국은행.
- Cigarini, A., Bonhoure, I., Vicens, J., & Perelló, J. (2020). Public libraries embrace citizen science: strengths and challenges. *Library & Information Science Research*, 43(2), 101090. <https://doi.org/10.1016/j.lisr.2021.101090>
- Harwood, R. (2023). The urgent need for libraries to reimagine their civic role by turning outward. *The Library Quarterly*, 94, 64-81. <https://doi.org/10.1086/727818>
- Johnston, J., Mierzecka, A., Tóth, M., Paul, M., Kisilowska-Szurmińska, M., Khosrowjerdi, M., Vårheim, A., Rydbeck, K., Jochumsen, H., Rasmussen, C. H., Pálsdóttir, Á., Olson, A.,

- Skare, R., & Mathiasson, M. H. (2024). Public libraries' role in supporting Ukrainian refugees: a focus on Hungary and Poland. *Journal of Librarianship and Information Science*. <https://doi.org/10.1177/09610006241259490>
- Lenstra, N., Oğuz, F., D'Arpa, C., & Wilson, L. S. (2022). Exercising at the library: small and rural public libraries in the lives of older adults. *The Library Quarterly*, 92, 5-23. <https://doi.org/10.1086/717232>
- Sherman, M. & Oakley, S. (2024). Small and rural libraries transforming communities: a discourse analysis of media coverage. *The Library Quarterly*, 94, 316-336. <https://doi.org/10.1086/730467>
- Young, J. C., Boyd, B. S., Yefimova, K., Wedlake, S., Coward, C., & Hapel, R. (2020). The role of libraries in misinformation programming: a research agenda. *Journal of Librarianship and Information Science*, 53, 539-550. <https://doi.org/10.1177/0961000620966650>

• 국문 참고자료의 영어 표기

(English translation / romanization of references originally written in Korean)

- Busan Metropolitan City (2021). *Busan Population Policy Briefing*. Busan: Busan Metropolitan City.
- Hong, Ki-Seok & Yoon, Tae-Young (2019). *An Analysis of Population Movement in the Busan Region: Focusing on the Youth Population*. Bank of Korea.
- Jeong, Ki-Seong & Hong, Sa-Heum (2019). A spatial analysis study on factors influencing population influx into the capital region using GIS and geographically weighted regression. *Journal of Korea Planning Association (JKPA)*, 54(6), 116-127.
- Jeong, Yun-Hee (2019). A comparative study of publishing, library, and reading policies from the perspective of the book culture ecosystem. *Journal of Cultural Content Research*, 15, 69-104.
- Kim, Dae-rae (2019). The trend of population migration of busan (1970-2018) and its implications. *The Korean Journal of Local Government Studies*, 23(1), 1-24.
- Kim, Ji-Young (2023). A study on public library librarians' intention to use AI-based technology. *Journal of Korean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Society*, 57(3), 163-190.
- Kim, Yoon-Hee & Kong, Soon-Ku (2023). A study on network formation of national and public university libraries based on cooperative systems. *Proceedings of the Korean Institute of Interior Design Conference*, Seoul, 200-223.

- Lee, Hyunkuk & Kang, Young Hwan (2019). Amenity and youth population change: focusing on the case of Daejeon metropolitan city. *Korean Society and Public Administration*, 30(3), 195-215.
- Lee, Wang-Gun (2005). Development of urban regeneration projects: directions for urban regeneration and economic revitalization. *Urban Affairs*, 40(439), 12-20.
- Lim, Miri (2023). A Study on Strategies to Activate Reading Groups for Young Users in Public Libraries. Master's Thesis, Ewha Womans University.
- Ma, Sang-Yeol, Kang, In-Ju, Bae, Kwang-Han, Jeong, Hee-Soo, Nam, Kwang-Woo, Lee, Woo-Bae, & Hong, Soon-Heon (2009). A Study on Management Strategies for Population-Declining Cities in Gyeongnam. Gyeongnam Research Institute.
- Noh, Younghee & Kang, Jung A (2024). A study on librarians' perceptions of changes in the role of public libraries as institutions to respond to local extinction. *Journal of the Korean Biblia Society for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35(4), 93-118.
<https://doi.org/10.14699/kbiblia.2024.35.4.093>
- Oh, Jeung-Il & Ahn, Gi-Don (2007). A causal relationship test between job changes and population migration in 15 provinces in Korea. *Journal of National Land Research*, 53, 57-76.
- Statistics Korea (2021). Population Projections for 2020-2070. Daejeon: Statistics Korea.

